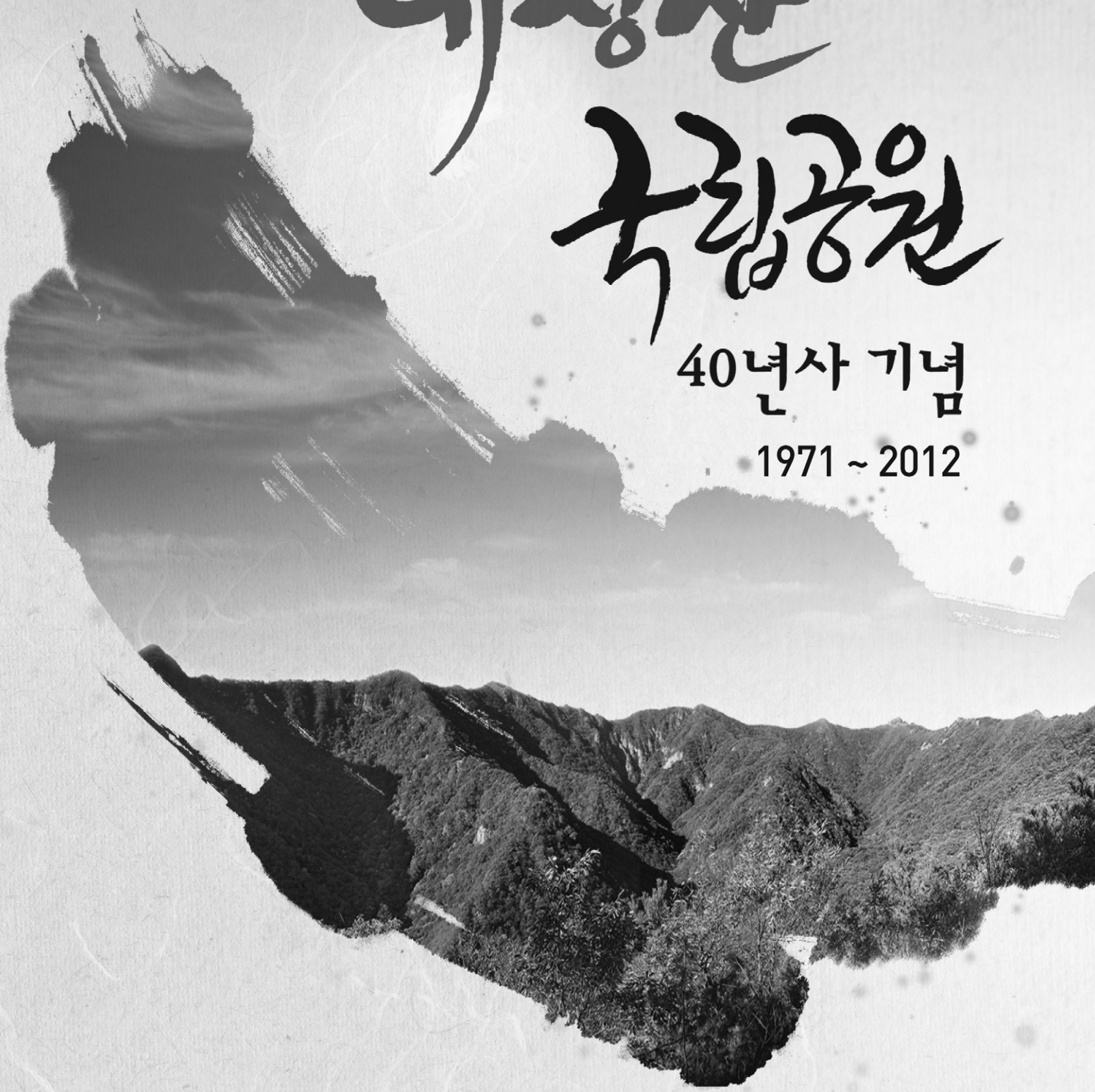
NAEJANGSAN NATIONAL PARK

내장산 국립공원

40년사 기념

1971 ~ 2012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NAEJANGSAN NATIONAL PARK OFFICE

Contents

내장산국립공원 40년사 기념

발간사 ····· 004
축사 ····· 005
내장산국립공원 연혁 ····· 008

한눈으로 보는 내장산국립공원 역사

최초에 도전한다 ····· 012
내장산국립공원 개소 ····· 014
내장산국립공원을 가꾸는 직원들 ····· 016
주요 탐방시설의 기능 및 변화 ····· 018
세월따라 변하는 경내지역 탐방 ····· 020
주요 인사의 내장산 방문기 ····· 024
내장산 탐방의 명물 케이블카 ····· 026
지역주민과 국립공원 ····· 028

사업기조 변천에 따른 공원관리의 변화

개발주도의 정책 이념기(1971~1975년) ····· 032
보호위주의 정책 이념기(1976~1980년) ····· 033
이용주도의 정책 이념기(1981~1986년) ····· 034
전문화 관리 개념 도입기(1987~2003년) ····· 036
고객중심의 질적 서비스 강화기(2004년~현재) ····· 037
사진으로 보는 1990~1994년대 발자취 ····· 039
사진으로 보는 1995년~현재까지 발자취 ····· 042

추억의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은 추억을 담고 ····· 048
내장산을 품은 선율 ····· 058
언론에 비친 내장산국립공원 ····· 064
아이들의 눈에 비친 내장산국립공원 ····· 070
내장산국립공원 과거 에피소드 ····· 074

내장산국립공원 소개

내장산 으뜸 비경! 단풍 ····· 078
내장산국립공원 숨은 볼거리 비자나무림 ····· 082
내장산 탐방코스 ····· 084
내장산 9봉 ····· 086
내장산국립공원 경관자원 ····· 088
내장산국립공원 생물자원 ····· 090
내장산국립공원 문화자원 ····· 092
내장산과 전설 ····· 096

내장산국립공원 40년사를 마감하며

내가 생각하는 내장산국립공원 ····· 100
직원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 103
발간후기 ····· 109

발 간 사

숨겨진 보물이 무궁무진한 보물산 내장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백두대간 호남정맥(湖南正脈)의 건강한 자연생태계와 함께 계절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내장산...최고봉인 신선봉을 중심으로 9개 봉우리와 계곡이 태극모양의 독특한 형세를 이루고 그 안에 청정한 자연생태경관과 감춰진 조선왕조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호남의 금강..언제나 푸르른 생명력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멈추게 하는 우리나라 으뜸 국립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71년 11월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과 사람을 아우르는 공원관리로 오늘에 이르렀으나 내장산국립공원의 역사를 한 눈으로 정리한 자료가 없어 이번 40년사 발간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발족이래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최초로 조성된 원적골 자연관찰로(1992년)와 탐방안내소 개소(1998년)는 내장산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함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휴식처로 각광받아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불어 그간 수많은 선 · 후배님들의 노력으로 내장산 동·식물 자원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보전 · 관리, 자연친화적 공원시설 설치로 탐방편의 제공, 국민의 휴양기회 제공과 함께 자연을 이해하는 다양한 탐방프로그램 운영, 주야를 막론한 현장순찰로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최근 '자연 치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에 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확산되고, 또한, 환경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질환 이외에도 일상에서 얻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연에서 치유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의 건강한 자연환경 가치를 높이고 이곳을 찾는 국민에게 휴양과 치유 기능을 제공하여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때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40년 역사와 추억의 발자취를 통해 내장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도 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자연사랑, 국민행복, 지역협력, 그리고 미래지향의 핵심가치 실현으로 50년, 100년 이후의 미래세대가 자연이 주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내장산국립공원 40년을 이끌어온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12년 6월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 종 달

축 사

우리 고장의 자랑이자 긍지인 내장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어언 40주년을 맞이하여 '내장산 국립공원 40주년 기념 도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본 도서의 발간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신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 김종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내장산은 백두대간의 맥을 이은 호남정맥의 으뜸이요, 예로부터 조선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국 제일의 단풍의 명소로 그 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젖줄인 동진강의 발원지로써 오랜 기간동안 우리 정읍시민과 애환을 같이 해 왔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용굴암, 은봉암, 비래암으로 옮김으로써 단절될뻔한 우리의 역사를 지켜낸 유서깊은 곳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하나 빼놓을 수 없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내장산국립공원만이 가지는 자연생태자원, 전통문화유산과 천년고찰 내장사 등 모든 자원들이 한 폭의 수채화에 그려지듯 본 도서에 담겨 내장산국립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가치있는 값진 자료로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나온 40년 발자취를 머금고 1,0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내장산국립공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장산국립공원 40주년 기념 도서' 발간을 축하하며,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의 무궁한 발전과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정읍시장 김 생 기

축 사

먼저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국립공원을 널리 이해하고 보다 좋은 자연 경관을 가진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내장산 국립공원 발자취' 라는 문화, 관광, 역사를 총망라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세기는 문화와 생태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에서 문화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태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중요시 해야 할 시점이고 고유문화 자산을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해 글로벌 브랜드화를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전통문화와 우리 지역의 천연의 생태공원인 내장산 국립공원의 세계화에 있다고 봅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전통문화가 자리한 내장산 국립공원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로의 자리매김과 문화관광, 생태관광의 대국으로 나아가는 상품으로의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할 방법이 '내장산 국립공원 발자취' 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사찰과 산과 들, 바다는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매우 소중한 문화재이며 그 가치는 한민족이 보여 줄 수 있는 전부라 해도 과언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좋은 내장산을 알리는데 적당한 홍보물이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립공원에서 내장산을 알리고 그동안 국립공원으로서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책자가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장산은 월영봉, 연자봉, 연지봉, 불출봉, 신선봉, 장군봉 등이 주봉인 영취봉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아주 아름답고 고운 단풍이 화려한 천하제일 명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 내장산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국난인 임진왜란 중 조선왕조실록의 이안해 와 보존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이며, 한국불교의 거성들이 생과 사를 논했던 불교사상의 기연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또 내장산을 찾는 많은 분들은 산이나 물을 좋아한다고 할 때에는 요산요수(樂山樂水)라고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논어(論語)》 옹야(雍也)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입니다.

"지자(知者)는 요수(樂水)하고 인자(仁者)는 요산(樂山)하니 지자(知者)는 동(動)하고 인자(仁者)는 정(靜)하며, 지자(知者)는 낙(樂)하고, 인자(仁者)는 수(壽)하느니라."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動的)이고, 어진 사람은 정적(靜的)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낙천적이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 는 의미로 풀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온갖 사리에 통달하기 때문에 두루 유통하여 마치 물 흐름처럼 막힘이 없어 물을 좋아하는 반면 어진 사람은 의리(義理)에 편안하여 사람됨이 중후하고 변함이 없어 마치 산과 같아서 산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쉼 없이 흐르는 물이 동적이라면 중후하고 변함없이 일정한 모습을 띤 산은 정적인 셈입니다. 동적인 지자(知者)는 대체로 낙천적이고 정적인 인자(仁者)는 장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을 보면 일정한 모습을 따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입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습을 띠고 네모 난 그릇에 담겨지면 네모 난 모습으로 보이지만 물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아래를 향해 흘러가면서 막힌 것이 있으면 돌아가고 패인 곳이 있으면 이를 메워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좁은 곳을 지날 때는 급하기도 하고 너른 곳에서는 천천히 제 갈 길을 갑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잘 대처하는 데서 지혜로움을 상징하게 된 듯합니다.

그런가하면 산은 어떠합니까? 늘 말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변함없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철 따라 그 모양은 달라지지만 여전히 장중한 그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흙이나 돌, 나무나 풀 따위를 다 받아들이면서 조용한 가운데 자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진 사람의 행동도 마치 산과 같아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나 포용을 통해서 그 자리를 항상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어진 자를 형상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어진 자는 의리(義理)에 밝고 산과 같이 중후(重厚)하여 변(變)하지 않으므로 산을 좋아하고, 지혜(智慧)로운 자는 사리(事理)에 통달(通達)하여 물과 같이 막힘이 없으므로 물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을 찾아 주는 많은 사람들이 현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초석으로서의 숨은 역할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찬란한 민족문화가 살아 있고 자연환경이 뛰어나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학적, 지리학적, 고고학적 가치가 있으며,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동식물과 광물까지, 멸종과 소멸의 위기에 있는 기념물과 사적 등을 불법적인 포획과 채집 그리고 파괴로부터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산을 되갚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는 것이 소납이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입장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내장산 국립공원의 발자취 40년사' 를 바라보며 내장산의 이모저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자료로서, 내장산을 알리는 홍보자료로서의 시금석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봅니다.



불기 2556년

운림산방에서 내장사 주지 **지선**

History 내장산국립공원 연혁

1971	1971. 11. 17.	국립공원 제 8호 지정(건설부고시 제 101호)
1973	1973. 12. 12	공원 기본계획 고시 (건설부고시 제 120호) 1,640㎢
1987	1987. 8. 5.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북부 • 남부관리사무소개소
1991	1991. 4. 23.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무부 이관
1997	1997. 8. 30.	국토대청결운동실시
1998	1998. 2. 28. 1998. 7. 2.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이관 내장산북부 탐방안내소 개관
2003	2003. 8. 30.	공원 구역 변경:81.715㎢(증 10.43㎢) (환경부 고시 제2003-142호)
2004	2004. 1. 30.	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사무소, 내장산남부사무소로 명칭 변경
2006	2006. 11. 22.	내장산사무소 → 내장산사무소(변경없음) 내장산남부사무소 → 내장산백암사무소(명칭변경)
2007	2007. 10. 5.	내장산사무소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명칭변경) 내장산백암사무소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명칭변경)
2010	2010. 9. 2. 2010. 11. 1.	공원구역결정 (변경) 80.71㎢ IUCN 카테고리 변경등록(V → II)

한눈으로 보는 내장산국립공원 역사

최초에 도전한다
내장산국립공원 개소
내장산국립공원을 가꾸는 직원들
주요 탐방시설의 기능 및 변화
세월따라 변하는 경내지역 탐방
주요인사의 내장산 방문기
내장산 탐방의 명물 케이블카
지역주민과 국립공원





최초에 도전한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최초의 영광을 가득 지닌 공원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최초'로 한 일은 무엇일까요?



▲ 자연관찰로

먼저 국립공원 최초의 자연관찰로인 원적골 자연관찰로 조성(1992년)이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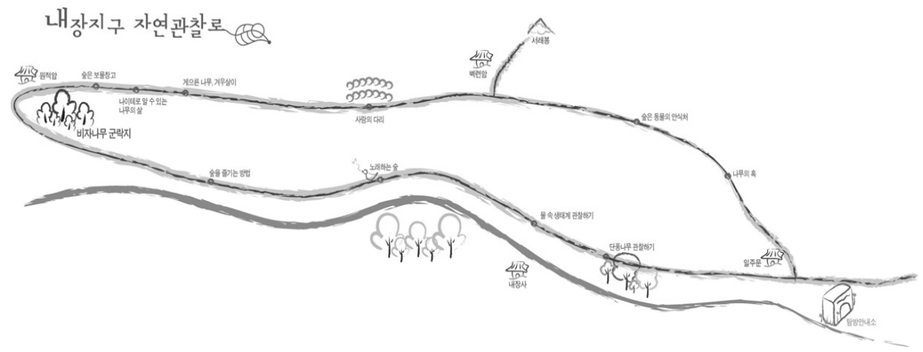
국립공원내 특정자원이 분포된 지역은 더할 나위 없는 자연학습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은 실제로는 접근이 어렵거나 답압(사람들이 밟는 작용)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에 국립공원에서는 다수 인원의 이동 및 운집에 이상이 없도록 노면을 정비하고 자연과 문화자원 안내를 위한 해설판 설치와 이용자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자연관찰로를 조성하였는데요. 전국 국립공원의 자연관찰로 수가 46개소에 이릅니다. 1992년에 조성된 원적골 자연관찰로는 내장사에서 원적암, 비자나무 군락지, 사랑의 다리, 벽련암을 거쳐 내장사 일주문에 이르는 3.6km 구간입니다.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는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자연을 느끼며 감동을 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세요.



▲ 숲속체험



▲ 산림욕체험





▲ 탐방안내소 개소(1998)



▲ 탐방안내소 현재의 모습

두 번째로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최초를 기록한 것은 바로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개소입니다. 탐방안내소는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해당 국립공원에 대한 생태, 경관, 지질, 역사 등 공원자원을 이해하도록 하고 탐방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시하여 탐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공원입구 또는 명소 부근 탐방안내소가 설치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는 것이 명소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 인상적일 때도 있습니다. 1990년대 전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일부 면적을 이용하여 지도, 모형을 전시하고 안내에 응하였으나 그 규모와 내용이 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장산국립공원에서는 1998년 7월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최초로 적절한 규모와 내실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명실 공히 국립공원 탐방안내소로서의 기틀을 갖추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는 연면적 75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로 종합전시실, 표본실, 디오라마, 영상실, 자료실,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장산의 동·식물과 생태계, 뛰어난 경관과 명소 등 풍부한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안내소 입구에 조선왕조실록 이안과 관계된 용굴과 서래봉 능선 모형 설치와 단풍터널 가상체험 시설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내에는 각종 전시회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최근에는 휴게 공간 내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여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탐방안내소 내부



내장산국립공원 개소

NAEJANGSAN NATIONAL PARK

과거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지정은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지정 대상으로 하였으나 법적으로 명문화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공원 지정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몇 가지 비공식적인 가늠자를 만들어 지정 검토의 자료로 삼았습니다.

- **토지소유** : 대부분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거나 보안림,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 관계자가 공원 지정에 협력할 것
- **면　　적** : 50㎢ 이상
- **자 원 성** :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원시성 자연풍경
- **경 관 성** : 경관 요소가 다양하고 계절성이 뚜렷한 풍경

이러한 검토기준은 차츰 구체성을 띄게 되었고 토지소유 등의 문제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 1988년까지 모두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도 지정면적 76.032㎢, 보호구역 12.561㎢로 1971년 11월 17일 8번째로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지정당시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라북도에서 관리하였으나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과 더불어 관리권이 이양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국립공원은 기존 건물을 인수하여 사무소로 이용하였으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예산으로는 최초로 신축하였습니다.



▲ 내장산북부관리사무소 개소 당시(1987)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현재)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개소에서 현재까지

최초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현 멸종위기 증식 묘포장이 있는 일원에 한옥식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 후 현재 탐방안내소가 있는 자리의 내장산관광호텔(1962년 건축) 건물을 인수하여 1987년 8월 5일 내장산북부관리사무소를 개소하였고, 최원범 초대소장이 취임하였습니다. 현재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1990년 7월 11일 신축 이전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소도 증축과 변화를 거듭하였는데요, 특히 2011년에는 환경을 생각한 옥상녹화사업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물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 옥상녹화사업 전



▲ 옥상녹화사업 후(2011)

내장산국립공원을 가꾸는 직원들



'언제나 묵묵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자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청춘을 보내면서 공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땀과 추억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찹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이 개소할 때 입사하여 퇴임 후 다시 국립공원지킴이로 공원 관리를 하고 계신 김종만 씨의 말입니다. 이렇듯 국립공원의 역사는 그동안의 많은 직원들이 맨손으로 이룩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장산국립공원을 가꾸어 온 직원들을 만나보시죠.



▲ 내장산국립공원 구 관사(1981)

최초 내장산국립공원은 총 1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현재의 50여명과 비교하면 월등히 적은 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많은 발전이 있어 1995년 1개 숙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현재는 4개의 숙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유명 메이커 아웃도어룩이 부럽지 않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복장은 탐방객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복장이 세련되어지기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 근무복 변천사



▲ 1984년 직원 근무복



▲ 1991년 직원 근무복



▲ 1993년 직원 근무복



▲ 1994년 직원 근무복



▲ 1997년 직원 근무복

▼ 1998~현재 직원 근무복





주요 탐방시설의 기능 및 변화

공원시설은 탐방객의 이용에 따른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적정한 기능의 시설을 배치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동시에 탐방객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이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공원시설물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국립공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진입로와 주차장은 8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달라졌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내 내장사에 이르는 길이 포장되고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도 이 시절입니다. 내장산 주차장 시설도 확충되기 시작하여 현재 6개의 주차장을 운영, 탐방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주차노선을 긋는 과거 사진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제1주차장 라인작업(19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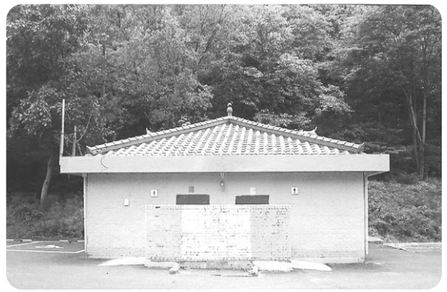


▼ 내장산화장실(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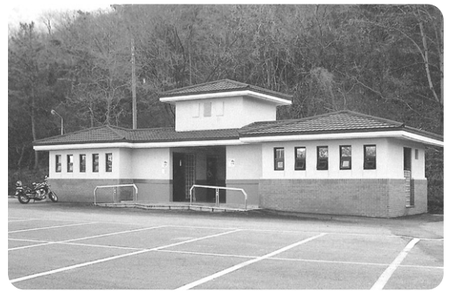


다음으로 탐방객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화장실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80년대 국립공원에 탐방객이 급증하자 주차장 시설물은 물론 탐방로 주변에 재래 수거식 공중화장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후 자연발효식을 도입하고 화장실 이용 빈도,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이용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형식, 문안, 규격 등의 총괄적 규정이 없어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고 내용에 오차가 있어 탐방객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안내표지판과 이정표는 규격화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야영장과 탐방로도 변화를 거듭해 자연과 사람 모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 화장실(1980년대)



▲ 화장실(현재)



▲ 안내표지판(1993년)



▲ 안내표지판(현재)



▲ 매표소(1980년대)



▲ 문화재관람요금소(현재)

세월따라 변하는 경내지역 탐방



▲ 기마순찰단

요즘도 국립공원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 중 상당수가 사찰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찰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도보로 30여분이 소요되니 어떤 사람에게는 긴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숲을 즐기면서 산책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2005년부터 가을 성수기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 외 기간에는 차량 출입이 가능한데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세월 따라 변하는 경내 운송수단의 이모저모입니다.

1980년대에는 현재 시내버스 자리가 시외버스 터미널이였습니다. 그 때는 내장산국립공원 경내 이동수단은 시내버스와 택시, 자가용 그리고 도보까지 모두 허용되었습니다. 내장산경내를 운행하는 대한여객 시내버스가 있었는데요,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오는 신랑신부들은 택시를 주로 이용하였고요, 단체 관광이 많았던 시절이라 주차장에 주차된 관광버스가 성냥갑을 쌓아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내를 운행하였던 시내버스의 경우 걸어가는 탐방객들에게 경적을 울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일쑤였고, 택시의 경우도 바가지요금이 극성이었다고 합니다. 또 내장산국립공원 입구의 상가 주민들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내 차량을 통제하라며 농성하기 시작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1991년부터는 경내 대형 차량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이후 자연환경보호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순찰수단으로 속리산의 기마순찰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본보기로 하여 내장산국립공원에도 2000년도 10월 기마순찰단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마순찰단은 상가주민의 반대와 운영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후 4년간 지속되다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내장산 경내 탐방은 무궤도 전기충전식 단풍열차가 운행 되었습니다. 매연이 전혀 없는 단풍열차를 운행하면, 종전의 경내버스가 하루에 수십여 차례 오가면서 발생했던 매연으로 단풍나무가 고사하거나 색깔이 바래는 등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고, 탐방객에게 쾌적한 보행 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차량 출입을 통제하면 접근이 오히려 불편해 탐방객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반발과 운영상의 기술적 ·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 기마순찰단(2000~2004)



▲ 내장산 경내 시내버스 (1980)



▲ 경내 무료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탐방객 (2008)



▲ 무궤도 전기충전식 단풍열차 운행(2008.10)

기마순찰단 단장 이관형계장 인터뷰



▲ 매표소를 지나는 기마순찰단(2001)

Q 내장산국립공원의 기마순찰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A 내장산에 차량 출입이 급증하다보니 탐방로 주변 단풍나무가 매연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사람과 차량이 얽혀 탐방객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요. 그래서 내장산국립공원에서 환경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2000년부터 기마순찰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볼거리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탐방객에게 말 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쁨을 주고자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Q 처음 내장산국립공원의 기마순찰단은 몇 명이었으며 말은 몇 필이었나요?

A 기마순찰단은 대원 4명과 말 관리요원 2명으로 총 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말을 조련하기 위해 전주승마장에서 강습 받았던 기억도 나네요. 말은 총 4필이었는데 내장산의 정기를 받으라고 이름도 내장산의 유명한 산봉우리인 신선봉, 연자봉, 장군봉, 상왕봉으로 지었고요.

Q 말에 오르는 것이 처음이셨나요? 처음 느낌은 어떠했나요?

A 태어나서 처음 말에 올라보는 것이었어요. 승마복을 갈아입고 폼을 잡고 나왔는데 막상 말 앞에 서니 다리가 후덜거리더라구요. 고삐를 잡고 안장에 올라타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말의 숨결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촉감은 잊을 수 없습니다.

Q 기마순찰단원으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말을 타고 국립공원을 거닐면 내장사 입구에서 내장사까지 한나절이 걸렸어요. 몰려든 사람들이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해서요. 싸인해 달라는 여자 탐방객들을 만날 때면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했어요. 특히 어린이들을 많이 태워줬거든요, 그 때 인기는 뽀로로 못지 않았답니다. 반면에 말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한번은 말이 시름시름 앓아서 혹시나 죽지 않나 밤새 마사 앞을 지키다 아침에 바로 가축병원으로 데리고 간 적도 있었어요. 말 타다가 떨어지는 사고는 비일비재해서 대원 중 한명은 팔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Q 내장산기마순찰단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A 제일 큰 이유는 부족한 예산 때문이었어요. 당시 마사로 활용하였던 건물과 땅이 지자체 소유였는데 공원에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읍시



▲ 마사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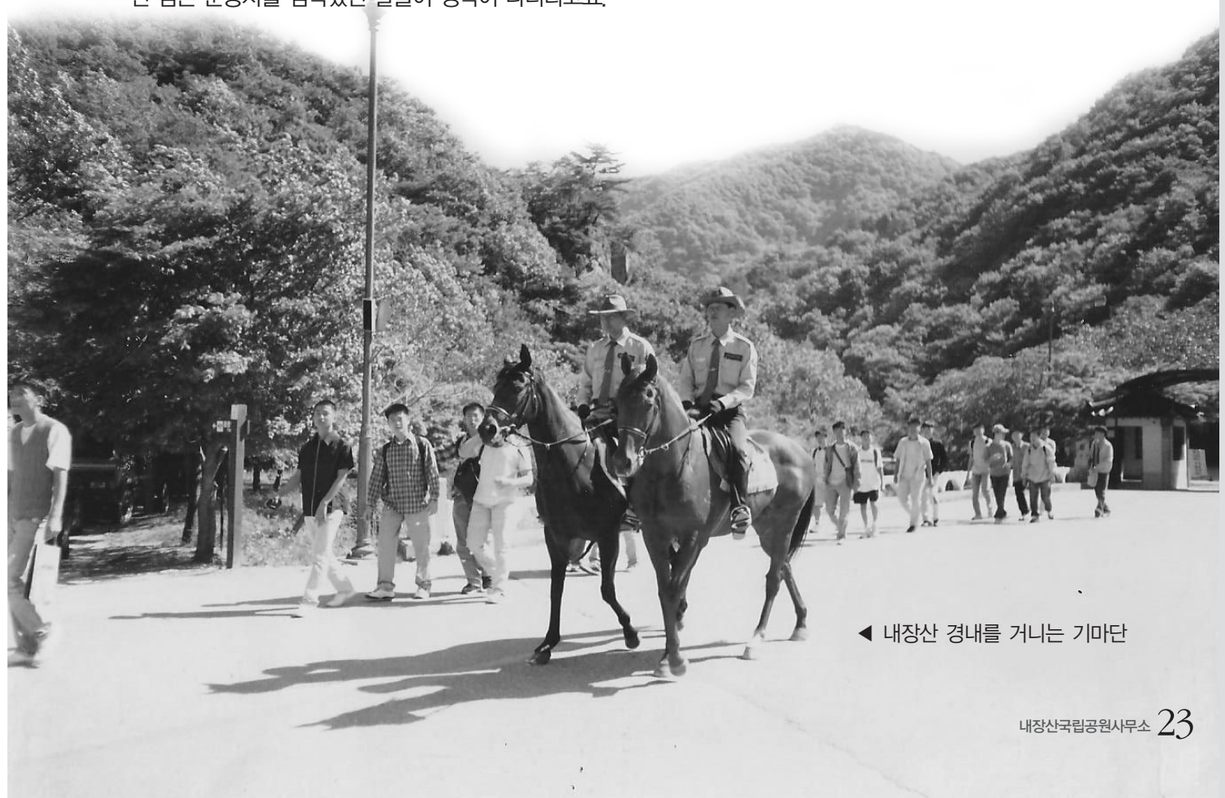


감사에서 그 일이 지적되었고, 공원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어요. 또한 탐방객들의 호응을 받았던 반면 지역상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마사가 있으니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서 내장산기마순찰단은 2004년 운영을 중단하고 사랑하는 말들은 다시 속리산으로 보내졌어요. 말을 보낸 뒤 한동안 마사가 있었던 곳을 지날 때면 검은 눈동자를 깜박였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A 내장산기마순찰단은 당시 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지만 자연과 탐방객을 고려한 시도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는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 내장산 경내를 거니는 기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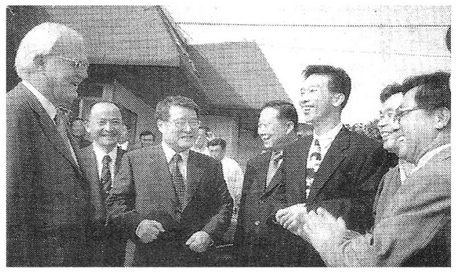
주요 인사의 내장산 방문기



◀ 박운영 초대이사장(1987.7.1)

4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은 주요 인사의 방문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87년 11월 4일 고 김수환 추기경이 방문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김정렬 국무총리께서 내방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는 내장산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던 것 같습니다. 89년 10월에는 당시 평민당 총재 부인이셨던 이희호 여사님도 내방하시고, 김대중 대통령은 93년 11월 2일 재직당시 권병화 소장의 안내로 내장산국립공원을 시찰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케이블카도 탑승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시승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 스테판 보스워드 씨는 1999년 10월 24일 내장산을 방문하여 신문에 특별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경희대 라종일교수

주한 미국대사와 내장산 탐방

주한 미국대사 스테판 보스워드(62세)씨가 지난 24일 경희대 라종일교수(전국정원 제1차장)와 함께 단풍이 곱게 물든 국립공원 내장산을 개인 자격으로 탐방했다.〈사진〉

보스워드 미국대사는 23일 정읍에 도착, 라교수의 출생지인 영원면 풍월리를 방문했다. 라종일교수와 스테판 보스워드 일행은 내장사 요사체에서 숙박을 한 뒤, 절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했다.

이어 사랑의 다리와 벽련암, 일주문을 거치는 산행에 들어가 정인대학생들과 대담을 나누는 등, 국립공원 내장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정읍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보스워드대사는 우리나라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먹는 한국통으로 북한문제 등 국제 외교정치에 해박한 라교수와 오랜 친분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스테판 보스워드 주한미국대사 방문보도자료(1999.10.24)



▲ 이석윤 이사장 초도 순시(1990.8.1)



▲ 엄대우 이사장 방문(1998.8)



▲ 김대중 전 대통령 내장산 방문(1993.11.2)



▲ 엄홍길(산악인)방문(2010.6.30)



▲ 김정렬 전 국무총리 내방(1990.5.16)

내장산 탐방의 명물 케이블카



◀ 내장산 케이블카(현재)

얼마 전 내장산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손에 카메라를 들고 가득 모여 시끌벅적 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1박2일을 촬영 나온 연예인을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촬영 장소는 내장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였습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내장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관광명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장산케이블카는 1979년 준공되어 1980년 8월부터 운행되었습니다.

당시 케이블카에는 올라가면서 내장산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케이블카 안내양 4명이 있었는데 인기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내장산 케이블카는 1985년에 교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2013년)에 다시 교체한다고 합니다. 케이블카에 얽힌 에피소드는 1980년대 케이블카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레기, 식수 그리고 전망대 이동화장실의 분뇨까지 이동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내장산케이블카 주식회사 정진안 씨에 의하면 케이블카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주요 인사들이 탑승한 것도 기억에 남지만 내장산 등반 도중 심장마비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급하게 케이블카로 이송시켜 생명을 구한 사건을 가장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 내장산 케이블카 안내양과 함께(1989.4)



▲ 케이블카와 함께한 추억의 사진(1981)



▲ 케이블카 이용 환경정화(1993)



▲ 케이블카 기념사진(1989.4)

▼ 내장산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사람들(1990.10)





지역주민과 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이 님비(NIMBY)의 대상이었다? 내 집 앞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반겨할 것 같은데 내장산국립공원과 지역주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장산 경내 깊숙이 자리 잡은(현재 일주문 일대) 상가들은 난잡한 음주가무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고, 노후한 시설이 미관을 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 모든 상가가 지금의 자리인 매표소 아래로 이동하였습니다. 지역상가 대부분은 음식점과 숙박업체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30여 년을 함께 하였는데요, 상가번영회 회장이신 송해웅 씨께 내장산국립공원과 상가주민과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인터뷰

Q 80년대 초 내장사 우화정 인근 상가가 집단으로 이주되었는데 그 당시 상가들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A 결혼하고 벌이가 없어 내장사 인근에서 기념품을 팔았어요. 그 땐 단체 관광 붐이 일어나 장사도 곧잘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전 도청과 국립공원에서 강제로 상가를 이전 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군소리도 못하고 따랐지만 그 땐 암담했습니다.

Q 그 당시 도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상가 집단 이주 사업이 세월이 지난 후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새 건물에 깨끗한 공원이 조성되면 장사도 전보다 배로 잘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이전 당시 관계자 분들이 국립공원과 내장사 인근에는 지금의 산불 통제소와 같은 대피소만 두고 어떤 상가나 건물도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장산국립공원 내는 어때요, 곳곳에 매점들과 식당이 있잖아요. 그 것을 볼 때마다 속은 기분이 들어 속상합니다.

Q 상가 이전 후 생활은 어땠나요?

A 지금의 상가는 뼈대만 있었어요. 상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전부터 급하게 해서 지금의 내장산사무소 자리인 공터에서 텐트치고 생활했어요. 아기도 있었는데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였습니다.



▲ 잡상인 단속 차량(1991)



Q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특히 내장산사무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며,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이제 상가가 있는 지역도 국립공원에서 제외되어서 국립공원사무소에 악한 감정은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 이전도 했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무엇이라도 하려 하면 국립공원의 제재에 부딪혀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장사 한참하고 있는데 햇빛가리개가 불법이라며 뜯어낼 때 멱살도 잡고 그랬으니까요. 국립공원에 바라는 점이 달리 없어요. 다만 국립공원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국립공원 직원들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전출되었다고 후임으로 오는 직원이 나몰라라하고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일관되게 공원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내장산국립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우리도 장사가 덩달아 잘 되는 것이니 내장산국립공원이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가꿔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 집단이전 전 내장사 근처 상가모습(1973)



▲ 상가 불법 단속(1994.9.30.)



▲ 상가 불법 철거(1997.8.17.)



▲ 상가단속으로 지역 상인과의 마찰(1997.10.27.)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 바위를 깬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지역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내장산국립공원의 주민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체적으로 '나눔회'를 구성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 요청사항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친밀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2009.4.)



▲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장(2010.5.)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선체육대회(2010.5.)



사업기조 변천에 따른 공원관리의 변화

개발주도의 정책 이념기(1971~1975년)
보호위주의 정책 이념기(1976~1980년)
이용주도의 정책 이념기(1981~1986년)
전문화 관리 개념 도입기(1987~2004년)
고객중심의 질적 서비스 강화기(2004년~현재)
사진으로 보는 1990~1994년대 발자취
사진으로 보는 1995년~현재까지 발자취



사업기조 변천에 따른 공원관리의 변화

NAEJANGSAN NATIONAL PARK



▲ 과거 내장산국립공원 진입로 모습(1969) : 뒷편 관광호텔 자리가 현재의 내장산탐방안내소 위치임.

1. 개발주도의 정책 이념기(1971~1975년)

1971년에서부터 1975년까지는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면서 내장산국립공원이 지정되었던 기간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진입도로 및 접근도로가 포장되고 기타 편의시설도 개선될 수 있다는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지역주민의 기대 때문에 각 지역은 주민의 일치된 의사로 공원지정을 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원 정책의 기조는 사업기조를 지역개발성격이 강한 공원 초입의 집단시설지구 건설, 주요 자원지역의 진입로 개설 등에 주력하여 대단위 도시적 시설설치 중심의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2. 보호위주의 정책 이념기(1976~1980년)

자연보호운동이 일기 시작한 70년대 후반기로서 1975년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는 등 정부주도의 국민운동이 전개되자 국립공원의 관리정책방향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절에는 탐방객 이용편의 시설로서의 숙박, 주차장,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은 공원자원이 비교적 부실한 지역에 극히 제한적으로 마련하였고 자연보호캠페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쓰레기통과 화장실을 너무 많이 배치함으로써 공원 내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직원들은 당시 병충해방제 작업과 내장산국립공원 잔디밭 조성 등 자연보호 활동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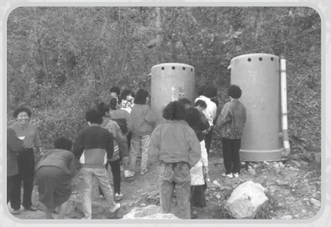
▲ 이 자연에 내가 보답할 길은? 내장산국립공원 내 잔디밭(1978)



▲ 산림 병해충 약재 살포(1980)



▲ 환경정화 활동(1980)



▲ 내장산 간이화장실(1980)

3. 이용주도의 정책 이념기(1981~1986년)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관련 사업의 발전, 도로 여건의 대폭개선, 자동차 보급, 언론보도매체를 통한 자연경관의 홍보, 정책적 유도 등으로 본격적인 대량 여가시대를 맞게 됩니다. 보호위주의 이념 아래 시행해 오던 이용시설의 억제나 탐방객의 봉쇄만으로는 국민의 이용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의 자원성을 해치지 않는 한계에서 최대한 국민의 이용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기해 왔던 국립공원 내 탐방도로의 개설 확충, 자동차관통도로의 개설이 이루어지고, 내장산국립공원 야영장도 이 시절(1984)에 조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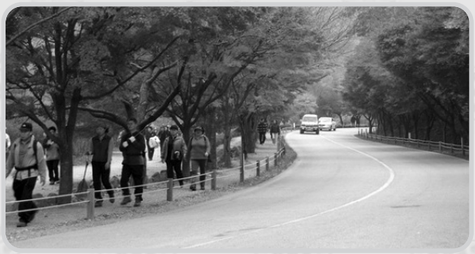
▲ 내장산 진입 매표소(1986)



▲ 내장산 진입로 솔티교 준공(1995.11.2.)



▲ 탐방로 모습(1989.6.)



▲ 내장산 탐방로 현재모습

NAEJANGSAN NATIONAL PARK



퓻!) 내장산국립공원 야영장

내장산국립공원 야영장은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랐어요. 위치도 삼청공원(지금 내장산 케이블카 옆 공터)에 있었습니다. 야영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이 그 곳에서만 취사와 야영이 허락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지정된 야영장에서만 야영을 할리 만무했죠. 금선계곡까지 곳곳에 숨어 있는 텐트들을 찾아 헤매느라 그 당시 직원들은 퇴근시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답니다. 지금 '정시 퇴근의 날'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행복한 거죠!



▲ 계곡내 불법 행위 단속(1996.8.7.)



▲ 잡상인 철거(1994.8.12.)



▲ 불법 무질서 단속(1994.8.)



▲ 야영 금지 알림(1993.7.)

4. 전문화 관리 개념 도입기(1987~2003년)

1987년 7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된 이후 국립공원개발사업은 사업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동안 연평균 100억 미만의 투자규모가 83년 139억, 97년에는 446억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공원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야영장, 안내표지판 등 탐방편의 시설도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자연보호 분야는 생태계 복원 사업, 자연자원 조사, 자연관찰로 조성 등이 이루어집니다. 공원시설의 증가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할 공원시설물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관련 분야 예산도 증가하여 화장실, 안내표지판, 야영장, 주차장 등 타시설의 개 · 보수비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 단풍터널 포장(1992.8.19.)


▲ 교량계단 보수 작업(1992)


▲ 가로등 보수(1994.3.27.)



▲ 자연사랑길 설치(1994.12.7.)

5. 고객중심의 질적 서비스 강화기(2004년 ~ 현재)

생활수준 향상으로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갔고, 이에 부흥하기 위해 우리 국립공원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희만 즐기는 국립공원에서 자연에서 배움을 얻고 갈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을 만들고자 2004년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자연해설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탐방안내소 내 휠체어, 유모차 대여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기념일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손쉽게 공원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게 홍보분야 업무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갔습니다.


▲ 사진 전시회 개최(2009)


▲ 고객의날 운영(2011)


▲ 무료 등산화 대여 서비스 실시(2012)


▲ 탐방 안내소 내 북카페(Book Cafe) 조성(2012)



풋!) 국립공원에서 미인대회를?

요즘은 여성 인권위 반대로 인해 공중파에서 방송되지 않는 미인 선발대회가 1990년대는 온 가족을 TV 앞으로 모여들게 하는 축제였습니다. 인기에 발맞추어 여러 지역에서 갖가지 미인대회가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정읍시에서도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였는데요, 대회 장소가 다름 아닌 내장산국립공원 경내였다고 합니다. 제1회 대회(1996년)는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 내 특설부대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당시 수상한 아가씨들은 별도 제작된 퍼레이드 카를 타고 행진했다고 합니다.



▲ 단풍아가씨 퍼레이드 카(1996.10.28.)



제2회 내장산 단풍축제 전국단풍아가씨선발대회가 지난 1일 내장 제4주차장에서 펼쳐졌다. 예선을 통과한 23명의 미인들은 한복 단장선 명시를 뽐내고 미를 겨루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날의 영광은 ▶ 진 권혜경(21 · 대전) ▶ 선 김은미(20 · 대전) ▶ 미 박윤숙(22 · 광주) ▶ 인기상 이수정(22 · 김제) ▶ 우정상 장선정(22 · 광양)에게 돌아갔다.

▲ 정읍내일신문 보도(1997.11.19.)



단풍아가씨와 함께 기념촬영(1998.10.25.)

사진으로 보는 1990~1994년대 발자취



▲ 내장산 우수관리사무소 표창(1991. 1.10.)



▲ 내장산 산림경찰발대식(1991.2.26.)



▲ 내장산 산불조심 캠페인(1991.3.1.)



▲ 1사1산 자매결연. 주식회사 태평양화학(1991.5.7.)



▲ 정읍시 산악회 자매결연 및 시산제(1992.1.5.)



▲ 내장산 산악기동대 발대식 495명참석(1992.3.6.)



▲ 내장산 1사1산 자매결연. BYC(1992.5.6.)



▲ 내장산 하천정비(1993.3.13.)



▲ 불출봉 위험 경고판 설치(1993.5.26.)



▲ 내장산병충해 약재 살포 알림(1993.6.16.)



▲ 내장산집단지역 잡상인 철거(1994.8.12.)



▲ 화장실 방향제 설치(1993.7.)



▲ 내장산매표소 모습(1994.12.)



▲ 1994년대 내장산안내표지판

사진으로 보는 1995년~현재까지 발자취

NAEJANGSAN NATIONAL PARK



▲ 지역주민돕기(1997.2.4.)



▲ 정읍시 내장산 관광특구 설명회(1997.3.27.)



▲ 국립공원관리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문화제전 참가(1997.5.31.)



▲ 조흥은행 수목표찰 기증(1997.6.7.)



▲ 불출봉 조난자 헬기 구조(1997.7.30.)



▲ 내장산 일주문 옆 인공폭포 조성(1998.9.19.)



▲ 야생동물의 낙원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
꿩 50마리 방사(1998.9.28.)



▲ 고산지 간이화장실 철거(1999.1.15.)



▲ 내장호 주변 국토대청결 운동(1999.2.27.)



▲ 잔디밭 보호시설 설치(1999.4.13.)

KOREA NATIONAL PARK
NAEJANGSAN



▲ 최초의 관사 철거(1999.8.19.)



▲ 지역주민과의 체육행사(2009.4.1.)



▲ 법계사 행정 대집행(2009.6.2.)



▲ 전기자동차 시승 고객서비스 제공(2009.9.20.)



▲ 자연해설프로그램 운영(2009.9.)



▲ 응급환자 구조(2010.1.28.)



▲ 지역사회공헌활동-한서요양병원 봉사(2010.5.26.)



▲ 고객의 날 페이스 페인팅 행사(2010.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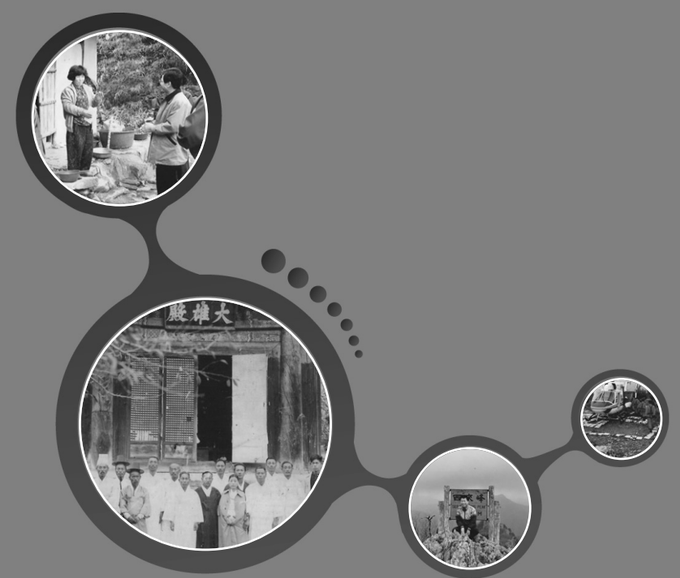
▲ 국가권익위 청렴 콘텐츠 최우수상 시상(2011.10.4.)



▲ 전주지방환경청 그린휠 모범기관 선정(2012.1.11.)

추억의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은 추억을 담고
내장산을 품은 선율
언론에 비친 내장산국립공원
아이들의 눈에 비친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과거 에피소드



내장산은 추억을 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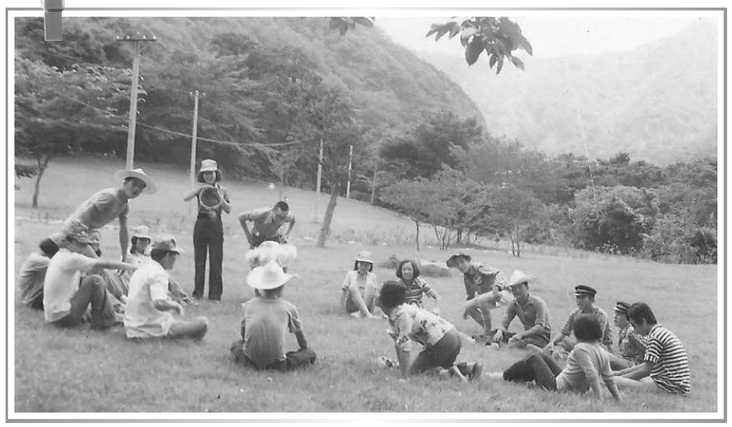
▲ 내장산 대웅전 앞에서(1934년)



▲ 내장사 부도전 앞에서 나팔바지 뽐내며(1969년)



▲ 친구야 기억나니 내장사 돌다리 앞에서(1969년)



▲ 40년 전 가을소풍, 게임하며 즐거웠던 시간(1972년)



▲ 한복곱게 차려입고(1973년)



▲ 단풍터널, 까까머리 중학생 교복입고(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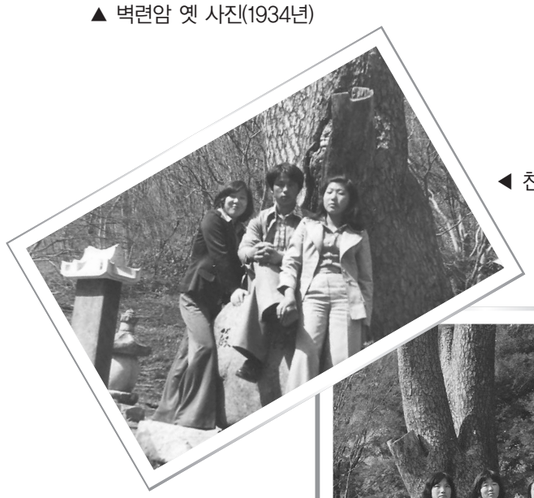


교련복 입고 하계 수련회 와서(1976년) ▶

추억의 내장산국립공원



▲ 벽련암 옛 사진(1934년)



◀ 친구들 보고 싶구나, 내장산 부도전 앞에서(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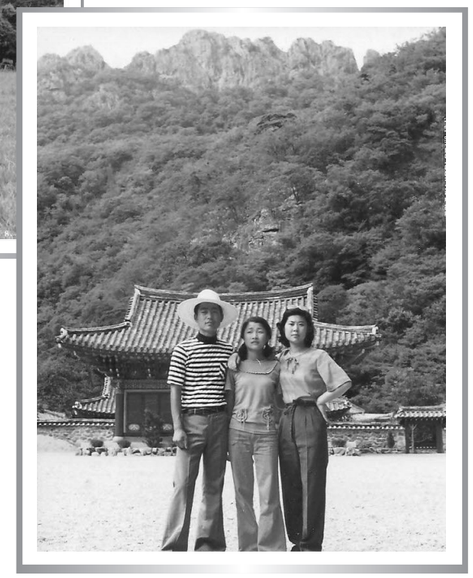
▲ 그리운 처녀시절
내장산 부도전 앞에서(1978년)



▲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
내장산 신혼여행(1978년)



▲ 꽃보다 예쁜 미녀들, 내장산 잔디밭(19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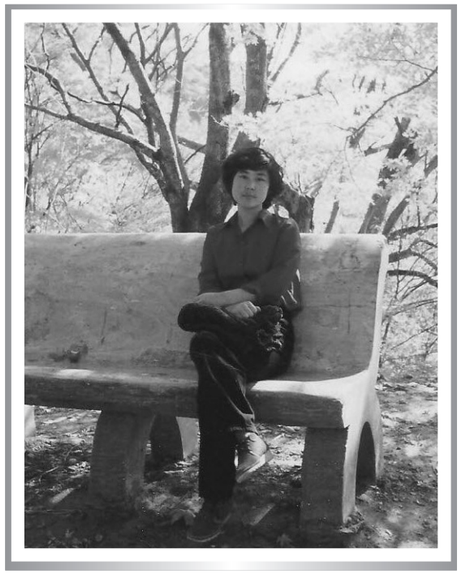
▲ 내장산 극락전 앞에서 가족사진(1978년)



▲ 내장산탐방안내소가 있던 곳에는 원래
내장산관광호텔이 있었지(1978년)



▲ 빨간 빵모자 쓰고 소풍나온 어린이들(1980년)



▲ 어디갔어 내장산 가을을 즐기던 추억의 벤치 어디 갔어(1980년)



▲ 나도 한때는 내장산모델(1981년)

▼ 정읍 초등학교 소풍 1순위는 내장산이었어요(1980년)





▲ 그 시절 최고의 야외결혼식장 내장산국립공원 자연보호헌장탑 앞(1981년)



▲ 내장산 케이블카 타기 전 기념촬영(1981년)



▲ 두손 모아 다소곳하게, 내장산 전망대앞(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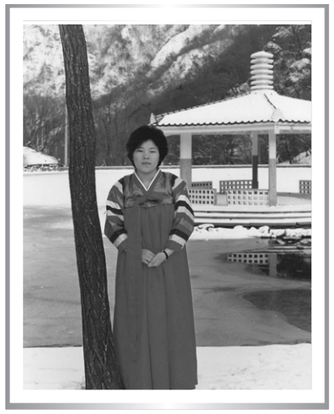
▲ 제2의 짝짓기, 결혼식 후 친구들과 뒷풀이(1982년)

가을에 내리는 눈(1982년) ▶





▲ 까만 선글라스, 멋쟁이 아빠와 함께한 내장산탐방안내소 앞 벤치에서 (1984년)



◀ 내장산의 우화정은 그대로인데, 나는 주름살이 늘었구나(1986년)



▲ 지금은 사라진 천하대장군 앞에서(1984년)



◀ 많이 바뀐 산 정상 안내표지판, 내장산 연자봉에서(1984년)



▲ 장가간 아들 유치원 소풍사진(1986년)



▲ 눈으로 덮힌 내장산의 겨울(1987년)



▲ 금강산도 식후경, 삼청공원에서(1987년)



▲ 서래봉 정산 등반 기념(1987년)

그 시절엔 워터파크보다 훨씬 좋아 ▶
내장산 계곡 물놀이(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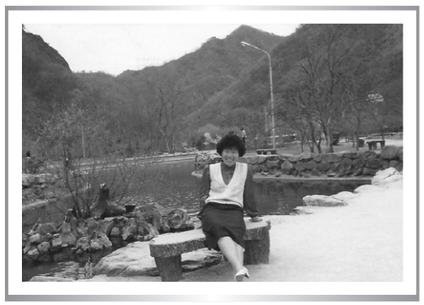
추억의 내장산국립공원



▲ 알개들, 내장산 우화정 옆 잔디밭에서(1987년)



▲ 신혼여행땐 우리남편도 멋있었네,
내장산관광호텔 신혼여행(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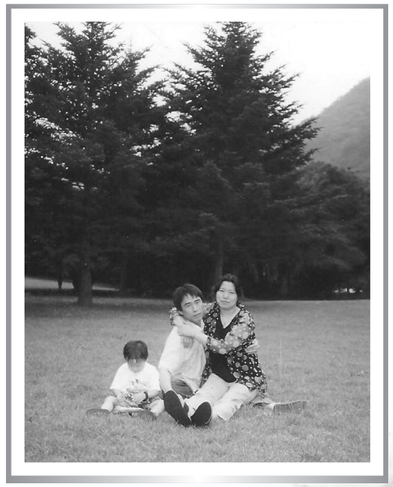
▲ 지금은 사라진 내장산탐방안내소 앞 연못에서
(1987년)



▲ 내장산사무소 짓기 전 내장 파출소 앞(1989년)



▲ 사무소 전화박스(1994년)



▲ 내겐 너무도 가벼운 아내,
내장산 잔디밭에서
(1996년)



▲ 기념촬영소, 내장산관광호텔(1994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남매예요
우화정앞에서(1993년) ▼



추억의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을 품은 선율

정읍의 자랑하면 많은 분들이 내장산을 떠올립니다. 내장산을 포함한 정읍은 현존하는 최고의 가요인 정읍사와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발원지인데, 이러한 정읍의 역사와 선율은 내장산 골짜기골짜기마다 서려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은 태인유생 안의와 손홍록이 임진왜란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실록을 내장산 깊은 곳 용굴에 옮겨왔기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실록은 춘추관과 충주, 상주, 전주 사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옮겨온 전주사고를 제외하곤 모두 전란으로 소실되었다고 하니 내장산의 깊은 품이 우리 역사의 일부분을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실록과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서울의 춘추관, 충청도 충주사고, 경상도 성주사고, 전라도 전주사고 등 전국에 나눠 보관되던 것으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보관하던 실록만 남고 모두 멸실됐으며 유일본이 된 전주사고본 실록을 지키기 위해 정읍 선비 안의와 손홍록 그리고 내장사 주지 희묵대사 등이 주축이 돼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전주 경기전내에 있던 전주사고에서 내장산 용굴암 · 은적(봉)암 · 비래암 등지로 실록과 태조 어진을 이안시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금선계곡 ▶

조선왕조실록 보존의 길을 따라



◀ 용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총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역사책으로 그 분량이 무려 888책(1893권)에 이릅니다. 1973년 12월 31일에 국보 151호로 지정되었고, 197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태인 지방의 선비 손홍록, 안의 등을 비롯한 전북인들의 죽음을 불사한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란 때 춘추관과 충주, 성주사고에 있었던 실록들은 모두 불타버렸으나, 전주 경기전에 보관하였던 실록만은 전북인들의 노력으로 유일하게 보존되어 현재 전주사고본은 서울대 규장각에 모셔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2천리를 옮겨 다닌 전주 사고의 실록

전주사고는 4대 사고 중 가장 늦게 건립되었습니다. 태조에서 명종까지의 실록을 비롯하여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각종 문헌 총 1344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지 채 한달도 안 되어 서울을 장악하는 등 물밀듯이 밀려오자, 경기전 참봉 오희길은 전라감사 이광, 전주부윤 권수 등과 함께 경기전 안에 모셔져 있는 태조의 어용과 왕조실록의 피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고의 마루 밑을 파고 실록을 묻으려 하였으나 방법을 바꾸어 깊은 산중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참봉 오희길은 무사 김홍무, 수복 한춘과 함께 밤낮으로 피신처를 찾아다니다가 정읍 내장산의 은적암을 적소로 정하고 용굴에 보관하였습니다.

그해 6월 왜군이 전주로 통하는 금산을 점령하는 등 전주성이 위험에 놓이게 되자 전라감사 이광은 학행과 지략을 겸비한 유사를 선발하여 참봉 오희길과 함께 실록과 어용을 피신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정읍 태인의 선비 손홍록, 안의가 경기전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때부터 안의와 손홍록은 몸을 돌보지 않고 사재를 털어 실록을 보존하는 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해 6월 22일 내장산 은적암에 도착하고 다음날

추억의 내장산국립공원

어용을 용굴암에 옮겼으며 실록은 7월 14일 내장산 비래암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어용도 비래암으로 옮겨 실록과 어용은 다음해 7월 9일까지 내장산 비래암에서 보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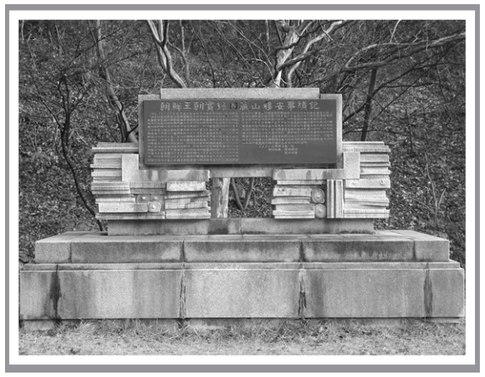
내장산으로 옮긴 후 오희길, 안의와 손홍록은 하루도 떠나지 않고 교대로 실록과 어용을 지켰습니다. 이들과 함께 영은사(현 내장사)의 승려 희묵과 무사 김홍무 등 의병 100여 명이 이를 수직하였습니다.

선조 26년(1593년) 진주성이 함락된 후 그해 7월 실록과 어용은 정읍에서 아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의와 손홍록은 이 때에도 식량과 말을 마련하여 배행하였습니다. 이에 호서 감찰사 이산보가 두 사람의 공을 상신하여 안의와 손홍록은 별제에 임용되었습니다. 어용은 아산에 그대로 모셔졌고, 실록은 다시 해주로 옮겨졌습니다.

선조 28년 실록은 다시 강화도로 옮겼으며 29년에는 어용을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안의는 이때 병을 얻어 집으로 돌아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선조 30년 실록과 어용은 안주를 거쳐 평안도 안변의 묘향산 보현사 별전으로 옮겨져 왜란이 끝날 때까지 묘향산에서 보관되었습니다. 손홍록, 김홍무, 수복 한춘, 사복 강수, 박야금, 김순복 등은 전주에서 묘향산에 옮겨가기 까지 5, 6년간 어용과 실록을 보호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유일하게 남아 있던 실록과 어진을 지키기 위해서 전라감영의 관원과 정읍 태인의 유생 그리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내장산으로 실록과 어진을 이안해 1년 1개월여 동안 지켜냈으며, 이후 실록과 어진은 충남 아산과 해주, 그리고 경기도 강화도를 거쳐 평안도 묘향산까지 옮겨 임진왜란이 끝난 뒤 다섯 본을 만들어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과 정읍시는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처럼 소실의 위험에 처했던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읍인들의 역사지킴이 활동을 고증해 복원하고 재현행사를 통해 관광자원화 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지표 문헌조사'를 마쳤습니다. 지표조사에서는 용굴암, 은적암, 비래암, 추정터를 조사했고 조사 지점 5곳에서 청해파문 (조선) · 어골문 · 집선문(고려-조선)의 기와 문양과 조선 전기에 유행한 형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대접류의 자기 등 출토 유물을 검토한 결과 『조선왕조실록』 및 어진 보존 터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과 정읍시는 올해(2012) 발굴조사를 통해 보존터를 확인하고, 차후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정읍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관련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조선왕조실록이안사적비

겨울철 내장산에 방문해 보셨나요?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겨울 내장산은 눈 구슬이 바람에 날리어 청아한 소리를 낸다 하여 동설주라 일컫습니다. 이런 내장산의 겨울을 보고 노산 이은상은 '내장산'이라는 시에서

"내장산 골짜구니 돌벼래 위에
불타는 가을단풍 자랑말아라
신선봉 등 너머로 눈 퍼붓는 날
비자림 푸른 숲이 더 좋다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에 오시면 그 아름다움에 반해 선율이 저절로 나오나 봅니다.

내장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도 있는데요. 배호의 '잘있거라 내장산아'라는 노래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잘 있거라 내장산아 다시보자 쓰리봉아
달이가고 해가간들 사무친정 잊어질소냐
잊지못할 그사람은 내마음을 울리지만
보고프면 언제나 찾아오리
잘있거라 내장산아

잘있거라 내장산아 간다한들 아주가리
단풍잎에 맺힌사연 그언제나 잊어질소냐
아로새긴 첫사랑에 받은상처 서럽지만
그리우면 또다시 찾아오리
잘있거라 내장산아"

뿐만 아니라 내장산의 시인 대우스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내장산에는 내장사 이외에도 벽련암, 원적암, 도덕암 등의 암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벽련암에 가시면 대우스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우스님은 2010대암문학제에서 연암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신 시인 스님으로 벽련암을 탐방하실 때 대우 스님이 쓰신 시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벽련암 대웅전 앞 누각 가운데 대나무 평상이 있습니다. 그 곳에 누워서 서래봉을 바라보시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바다에 풍덩 빠질 수 있습니다.



▲ 대우스님 연암 문학상 수상



▲ 벽련암 평상에 누워 서래봉을 바라본 모습

정읍내장산

-대우

인정의 가슴에 샘물이 솟고
어둠을 빗질한 파랑새 녹두꽃 성지
사람의 소리 새벽의 소리 숨쉬는 정읍

봄 내장산 푸득푸득 깨나는
푸른 눈 연초록 잔치
신부 화장으로 단장하네.

멱감은 여름 내장산 맑은 숲
바람소리 물소리 돌소리
하늘 빛 바다 되어 기도하네.

수줍음으로 타는 가을 내장산 단풍
비단 숲 오색 물결 가슴에 젖고
바람 그림자도 불꽃되어 타고 있네.

겨울 내장산 서래봉
설화의 꽃눈 눈꽃 하늘 가득
숨죽인 천년 잣나무 설원이었네.

신선봉에 오르면 신선이 되고
불출봉에 합장하면 부처가 되며
월령봉에 구름은 선녀 옷자락.

금선골 원적골 벽련골 돌들도 도란도란
금선폭포 도덕폭포 다투어 노래하고
사랑 다리에는 선남선녀가 있네.

내장산 정혜루 범종 울음
산빛 물빛 하늘빛 감추고
시방 어머님 말씀되어 살아나며,

호남의 금강 내장산 호국의 성지
하늘 바다에 천년의 미소며 벽련 죽로차
원願없는 원 이루는 벽련 기도도량.



▲ 대우스님(왼쪽에서 두 번째)과 현 정광수 이사장님(중앙)

시 한편에 내장산의 아름다운 자연이 그려지시나요? 그럼 매미소리와 잘 어울릴만한 한시 감상은 어떠세요?

정읍 문화원에서는 올해(2012)로 제13회 한시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중 내장산을 주제로 한 제4회 공모전 수상작품 2편의 해설을 엮어 봅니다.

[대 상]

만고강산 靈氣 받은 곳 여기 와서 보게되니
천지조화 합세하여 명산이 솟았구나
秘景은 단풍에 쌓였는데 누각은 저 안에 있고
淸溪는 돌을 씻고 지나서 산길을 그 사이에 뚫었네
종소리 멀리 울려 퍼지니 스님들은 寂靜으로 돌아가고
행락 인파가 漫遊하니 騷客들은 근심을 떨쳐 버렸다
끝없는 회포를 모두 그려내기 어려운데
홀로 羽化亭에 오르니 이 마음 스스로 한가하다

李 宰 喆 (광주시 광산구)

[찬조작품]

사계절로 번갈아 別景을 볼 수 있어
탐방객이 끊이지 않는 비단을 수놓은 산일세
봄바람 꽃길은 붉은옷으로 장식하고
여름 골짜기 흐르는 물은 깊은 수목사이로 서늘하더라
가을철 서리맞은 단풍은 산을 예쁘게 불태우고
겨울철 눈산은 백성의 괴로움을 덮어 주노나
해마다 구경하며 명시를 읊어 기리니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속에 학의 지저귐이 한가하도다

李 相 潤 (대구시 수성구)

언론에 비친 내장산국립공원



◇눈속에 파묻힌 내장산에는 나무마다 雪花가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요즘 매일 1천여명의 관광객이 몰려 雪景을 즐기고있다。

內藏山 雪花 장관

매일 1천여명 觀光客 몰려

【井州】內藏山국립공원에 설화(雪花)가 아름답게 덮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신정연휴에 39㎝의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지난 8.9양일간 10㎝의 눈이 또 내려 마치 설국(雪國)처럼 산과 들이 온통 하얗게 덮인 가운데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內藏山주변의 울창한 나무가지마다에는 눈이 꽃처럼 덮여있고, 소나무등 잎이 지지 않는 푸른 나무에는 눈송이들이 소복히 쌓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또 西來峰주변등 산 정상 주변의 나무가지들은 밑둥까지 성에가 얼어붙어 흰나무로 온통 변한 가운데 곳곳의 절경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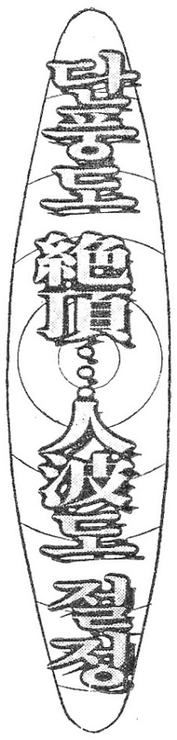
이처럼 온갖 형상의 설화가 內藏山을 뒤덮자 관광객들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井州시당국의 설경홍보와 함께 가을 단풍뿐이 아닌 겨울 설경의 內藏山으로 관광지 이미지가 심어져가고 있다。

內藏山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요즘 하루평균 1천명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이것은 예년의 배이상되는 숫자라는 것。신정연휴때 4천여명의 관광객이 內藏山을 찾은것을 비롯 10일 현재까지 약1만5천명의 설경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 전북일보(1986.1.1.)



觀光버스 총집합 단풍이 절정을 이룬 지난주말 內藏山엔 15만명 이상의 행락인파가 몰렸다。이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차량들로 주차장은 초만원을 이뤘다。



단풍도 絶頂… 人波도 절정

道內 유원지에 25만명 內藏山에만 15萬명

단풍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1월들어 첫 휴일인 2일 도내 25만의 행락인파가 유원지를 찾아 계곡을 만끽했다。

이날 사상최대인 15만명의 인파는 쇼씨, 高敞등지로 빠져 나가기도 했다。

내장산의 단풍구경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자 井州시·경찰·내장산번영회등 4백명의 질서요원이 투입돼 별다른 사고없이 수준높은 질서의식을 보였다。

그러나 식당 여관 우회도로개설 주차장시설등 관광인파의 질서의식수준에 크게 미달, 이에대한 개선책이 지적되기도했다。

한편 아직 수확을 못한 농촌에서는 마지막 추수에 이와함께 여관 음식점등이 대만원을 이뤄 일부 인파는 쇼씨, 高敞등지로 빠져 나가기도 했다。

내장산의 단풍구경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자 井州시·경찰·내장산번영회등 4백명의 질서요원이 투입돼 별다른 사고없이 수준높은 질서의식을 보였다。

그러나 식당 여관 우회도로개설 주차장시설등 관광인파의 질서의식수준에 크게 미달, 이에대한 개선책이 지적되기도했다。

한편 아직 수확을 못한 농촌에서는 마지막 추수에 일손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 전북일보(1986.11.3.)



◇10월 마지막 휴일인 28일 井州 내장산에 7만여 행락객이 몰려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계곡을 가득 메웠다. (사진 吳炳權기자)

내장산에 단풍 人波 7萬

차량행렬 4㎞…거북이 運行

이번週末께 절정

【井州】국내 최고의 단풍관광명소인 국립공원內藏山에 일요일인 28일하루동안 7만여 관광객이 몰려 인파가 물결을 이뤘다.

內藏山관리사무소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장산 입구 4㎞의 차량행렬이 기시작, 거북이 운행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內藏山관리사무소측은 이번주부터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등 피크타임으로 보고 있으며 10일동안 모두 100만명의 관광객이 몰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북일보(1990.10.29.)



내장산 찾아온 검독수리

전북 정읍군 내장면 국립공원 내장산의 까치봉 절벽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천연기념물 제243호 검독수리. 연간 1백만명이상 몰려드는 행락객들이 생태계파괴현상을 초래, 검독수리의 먹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조류학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井州=연〉

▲ 세계일보(1991.7.13.)

自然휴식년 이후 內藏山 생태계 회복

사라진 다람쥐 텃새 돌아와

【全州】국립공원내장산에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돼 등산객들의 입산이 통제되고 있는 일부 계곡의 자연생태계가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

18일 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91년부터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되면서 등산이 금지된 원적암뒤쪽 먹방이골2㎞계곡에 사라졌던 청설모(다람쥐의 일종)와 산토끼가 다시 나타나고 다람쥐의 서식밀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계곡물에 가재 개구리등이 급증하고 텃새인 박새와 딱다구리등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에따라 3년전까지 등산객으로 크게 붐비던 내장사~원적암~먹방이골~망해봉에 이르는 길이 칡다래 어름나무들이 번져 예전의 등산로를 찾기 어렵고 계곡의 바위에도 두꺼운 이끼가 끼는등 자연생태계가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

▲ 동아일보(1993.1.19.)

추령지구 본격 관광개발

淳昌 내장산·백양사연계 관광객 유치

【淳昌】淳昌군은 內藏山, 白羊寺와 연계돼 있고 온천과 천혜의 산림자원이 풍부한 福興 秋嶺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郡은 秋嶺일대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內藏山국립공원의 관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5천만원을 들여 75만㎡의 면적에 대한 福興 秋嶺지구 관광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淳昌군은 오는 8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준농지지역으로 고시하여 조화있고 균형있는 개발과 함께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천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秋嶺지구는 7개의 호텔등 숙박시설이 운영중에 있고 관광농원조성 온천개발등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규모 콘도미니엄건설이 승인신청중에 있어 계획성있는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 지역에는 천혜의 산림자원이 풍부해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 전북 최초로 산림박물관을 건립하는등 內藏山, 白洋寺등과 연계한 종합 관광지로서 각광받는 지역으로 특히 봄과 가을철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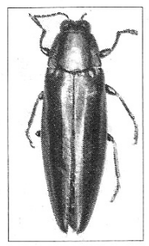
▲ 전북도민일보(1996.5.17.)

추억의 내장산국립공원

희귀곤충 '비단벌레' 내장산인근 집단서식

희귀곤충인 비단벌레〈사진〉가 내장산 인근에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동물 '곤-25호'로 보호되고 있는 비단벌레가 내장산 인근에 집단적으로 서식 문화재관리국 조사반이 투입돼 정읍시 쌍암·내장·용산·신정동 일대에서 서식지를 조사 했다는 것이다.



▲ 전라매일(1997.8.2.)

내장산국립공원 상행위 단속 마찰 심화

"위법행위" "철회" 주민 집단 농성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공원내 주민들의 상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 제지하고 나서자 주민들이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터뜨리며 관리사무소에 몰려와 집단농성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오전9시께 장성군 북하면 남창마을 주민 40여 명은 국립공원 내장산 남부관리소에 몰려와 "관리사무소측이 지난달 30일 공원 내 불법영업행위로 마을 주민 9명을 장성경찰서에 고발해 벌과금통지서가 전달됐다"며 이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농성에서 주민들은 "지난 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관광객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 또한 작지 않은 만큼 보상차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동안이라도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주거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 △남창진입로 포장 △남창집단시설지구 부근 철거대상물 6동 해제 등을 주장한 뒤 사찰 땅 및 공원관리 논밭에 대한 경작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들의 상행위가 자연공원법 등에 저촉돼 의법조처된 만큼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장성=차상현 기자

▲ 전남일보(1997.8.21.)

내장산국립공원 불법행위 감소

정읍시, 전년比 68건 줄어

【井邑】내장산 국립공원내 등산객들의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관리사무소(소장 김정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장산 일대의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지난 98년 105건에서 지난해 184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으나 올들어 지난달까지는 모두 11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또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법칙금 부과금액에도 98년 8백여만원에서 지난해 1천3백여만원 올해는 6백여만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 중 잡상인들이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장사하다 걸려 고발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내장산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며 "내장산은 국립공원으로 산행규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등산객들이 요즘과 같은 산불예방 기간에 허용되는 등산코스에서만 산행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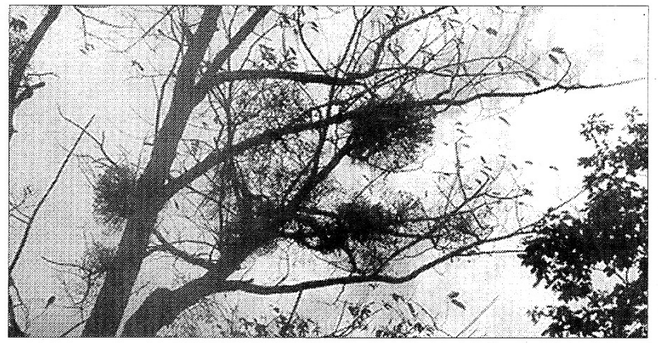
/박종덕 기자

▲ 전주일보(2000.12.11.)

'단풍없는 내장산' 대책 시급

내장산 단풍이 '까치집'으로 불리는 기생목 등으로 인해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큰 나무에 가려 '실종' 잡목들 무성 관리 절실 기생목 기승 枯死 위기



내장산 단풍나무가 관리 부재로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옛 명성이 위협받고 있다. 내장산을 찾은 단풍 관광객들이 "내장산 단풍이 절정에 달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풍나무가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내장산을 찾아 단풍나무 실태를 조사한 최연규 전 정읍임업협동조합장은"단풍이 덜 든 것이 아니라 단풍나무가 일반 잡목에 비해 숫적으로, 또 크기면에서 월등하게 적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단풍나무를 볼 수 없을 만큼 단풍나무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내장산 단풍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풍나무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내장사 부근을 지나면 거짓말처럼 단풍나무들은 사라지고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 잡목만이 무성한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 9월 태풍의 여파인 듯 부러진 나무들이 보기 흉한 모습으로 등산로 곳곳에 널브러진채 방치되고 있다.

내장산 케이블카에 오르면 내장산의 단풍 실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양지바른 산등성이에는 단풍나무들이 덩치 큰 나무아래 감춰져 있고 골짜기에는 등나무나 칡 넝쿨이 멋대로 자라 온갖 나무들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단풍나무는 생육조건이 까다로워 다른 나무보다 자라는 속도가 늦어 그대로 방치하면 생장속도가 빠른 나무에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 임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망대 주변의 경우 일명 '까치집'이라고 하는 기생목들이 이 나무 저 나무 할 것없이 기생하며 단풍나무등을 고사시키고 있어 심각함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내장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산 전반에 걸친 인위적인 육림이나 조림사업을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최전조합장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데도 산림보호사업을 펼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내장산의 상징인 단풍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간벌이나 보호사업은 불가피하다"며 "산 전체에 걸친 관리사업을 한 지가 20여년이 지나 서래봉 밑은 단풍나무 하나 없는 잡목 숲으로 변했다"고 아쉬워했다. /정읍=김석곤기자

hludens@jeonbukilbo.co.kr

▲ 전북일보(1999.11.9.)

내장산 야생동물, 야생화 함께 공부해요

내장산관리사무소, 자연해설프로그램 운영 격주 토요일 오후 20명내외 예약받아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2000년 8월부터 국립공원이 지니고 있는 역사, 문화유적, 자연자원(야생동물, 곤충, 야생화등)을 주제로 탐방객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탐방객의 변화하는 기대욕구충족과 자연학습탐방로에서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을 교육자료로 활용, 탐방객이 직접 참여하는 자연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경의식고취는 물론 우리 자연자원에 대한 자긍심고취로 훼손억제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 도모차원에서 실시하는 자연해설프로그램운영은 8월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연해설프로그램을 함께 이끌어갈 자원봉사활동가를 모집중이라고 말하고 자원봉사활동가는 자연생태계관련교육, 네이처게임등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방법을 연구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40대 전후 주부들의 활동이 대단하다며 참여를 바라고 있다.

자연해설프로그램 참가인원은 20명내외로 선착순 예약제로 받고 있는데 학생들의 생태교육장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정읍신문(2000.8.30.)



아이들의 눈에 비친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을 그려요' 내장산사무소는 지난 2000년 제1회 내장산사랑 그림대회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그림대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장산사랑 그림대회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마음껏 그림솜씨를 뽐내며 자연을 느끼고 고마움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내장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 내장산사랑 그림대회



▲ 동신초(두서연)



▲ 동신초(조유정)



▲ 내장산사랑 그림대회



▲ 북면초(유수연)



▲ 북면초(박정은)



▲ 북면초(허다민)



▲ 한솔초(전종호)

추억의 내장산국립공원



▲ 내장산사랑 그림대회



▲ 내장산사랑 그림대회



▲ 북면초(허다희)



▲ 수성초(김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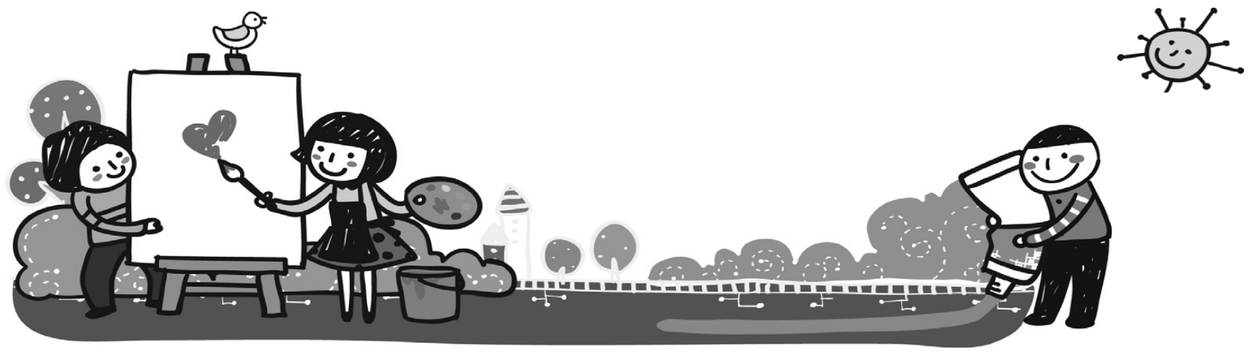
▲ 정읍초(김서희)



▲ 옹동초(김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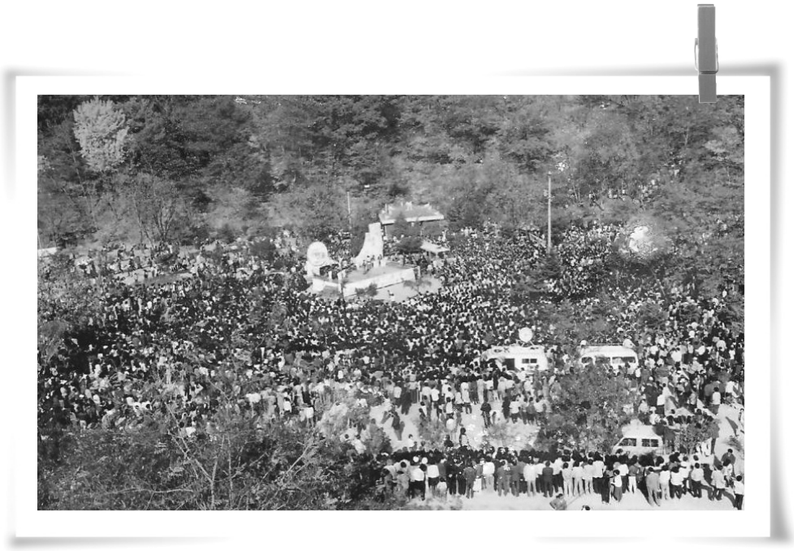
▲ 동신초(송준표)





▲ 정일초(김원미)

내장산국립공원 과거 에피소드



▲ 자연보호헌장탑 가을성수기 인파(1988)

내장산의 사라진 풍경

요즘 유행어인 '내장산 000 어디갔어?' 가 생각난다. 과거 내장산국립공원의 잔디밭은 더할 나위 없는 야유회 장소였습니다. 덕분에 가족이나 친구모임을 나온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잔디밭에 모여 돗자리 가득 음식을 풀어두고 야외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예로 부터 즐거운 곳에 늘 함께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술이었습니다. 특히 내장산국립공원 잔디밭에서는 사람들이 막걸리를 즐겨 마셨는데 때문에 내장산상가에서 잔디밭까지 막걸리를 배달해 주는 리어카가 많았다고 합니다. '내장산의 그 많던 리어카 다 어디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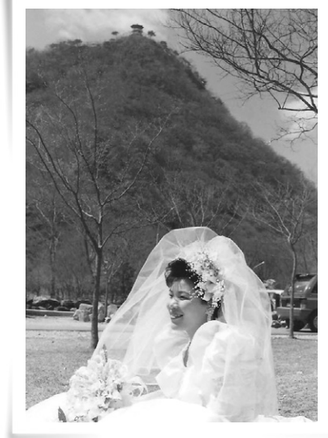
▲ 가을성수기 매표소앞 인파(1988)

결혼식장인 내장산

정읍 총각 · 처녀들의 인기 결혼식장은 어디였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장산관광호텔이라고 생각하실건데요, 내장산관광호텔보다 선호하는 결혼 장소가 바로 내장산국립공원 잔디밭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정읍사공원에 있는 망부석이 원래는 내장산국립공원 잔디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망부석은 두 손을 마주잡고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 조각상으로 남편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산 위에 올라가 남편이 있을 곳을 바라보면서 백제가요 정읍사를 불렀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망부석이 서 있었던 내장산국립공원 잔디밭에서 결혼을 하면 백년해로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80년대 당시 내장산 잔디밭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정읍사 망부상



▲ 웨딩촬영(1989)

수세식 화장실이 조용한 날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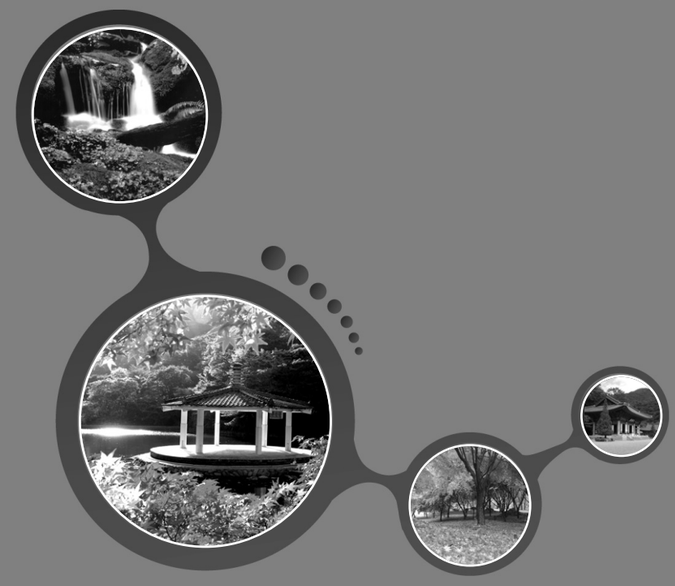


1985년 내장산국립공원내 2억여원을 들여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세식 화장실의 사용법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용변 후 물통 손잡이를 마구 잡아당겨서 손잡이가 뽑히거나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좌변기도 취급 부주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간 할아버지가 좌변기를 보고 깨끗한 우물물로 착각해서 세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뿐만 아니라 1986년 5월 6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내장산국립공원 내 1만㎡의 잔디밭도 관광객들의 공놀이 장소로 변해 잔디가 무성하기도 전에 시들어가 있고, 쓰레기 처리장에서 10~20m 떨어진 곳에서 놀면서 빈 깡통과 휴지를 그대로 놓고 가고 있다' 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질서의식과 공중도덕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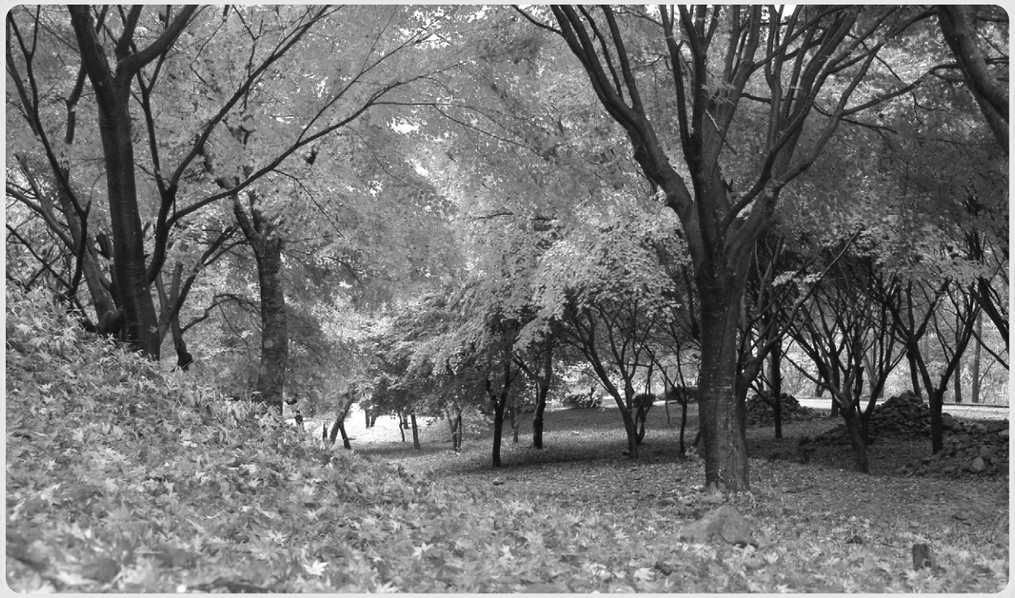
내장산국립공원 소개

내장산 으뜸 비경! 단풍
내장산국립공원 숨은 볼거리 비자나무림
내장산 탐방코스
내장산 9봉
내장산국립공원 경관자원
내장산국립공원 생물자원
내장산국립공원 문화자원
내장산과 전설



내장산국립공원 소개

NAEJANGSAN NATIONAL PARK



▲ 가을단풍

1. 내장산국립공원 나무

내장산국립공원 으뜸비경 단풍

내장산은 산세가 워낙 빼어난지라 '남쪽 금강산(南金剛)' 이라 불리고요, 지리산, 천관산, 월출산, 능가산과 더불어 호남 5대 명산으로도 꼽히는 내장산의 진면목은 단풍으로 불타오르는 가을철에 볼 수 있습니다. 내장산은 단풍으로만 치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는 산이기도 하지요.

맑은 가을날 내장산 전체에 걸쳐서 단풍나무가 그려내는 다양한 색채의 하모니는 흡사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화폭에 펼쳐놓은 파스텔 톤의 점묘화와 같습니다. 내장산 단풍이 누리는 인기의 비결은 북쪽에서부터 설악산이며 오대산, 북한산, 계룡산, 속리산, 지리산 등의 명산 단풍이 다 지고 난 다음 가장 늦게 서야 절정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뒤늦게라도 단풍놀이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내장산 진입로는 그대로 주차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단풍나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며 몰려다니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 내장산 단풍나무길



▲ 우화정과 단풍나무



▲ 월령봉에서 바라본 단풍절경



▲ 단풍나무잎

설악산 단풍이 굵직굵직한 암골 사이사이에 핏빛으로 새겨 놓은 듯 선명하고도 현란한 아름다움을 뽐낸다면, 지리산 단풍은 능선과 계곡 전체에 걸쳐 은은하게 수놓은 듯한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내장산 단풍의 아름다움은 설악산의 '현란함' 도 아니요, 지리산의 '장엄함' 도 아닌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친근감이 느껴지며, 초가을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움이 바로 내장산 단풍이 간직한 비밀입니다.



▲ 경내 단풍나무 이식작업(1994.2.27)

내장산 국립공원에 박대통령 고개가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상징은 단풍터널입니다. 매표소를 지나 탐방안내소까지 이어진 단풍나무 도로는 가히 터널 숲을 이루며 형형색색의 조화를 만들어 냅니다. 단풍나무 가로수길 중간에는 일명 '박대통령 고개'라 알려진 도로가 있습니다. 터널 도로를 달려가다 특정 고개에서 갑자기 비행기 타는 기분이 들자 뒤로 후진시켜 다시 달려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그 고개에는 과거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장승이 있어 사진명소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노후로 철거하여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 이유는 산중의 수목 95% 이상이 활엽수여서 노란색이나 주황색 등 여러 색감의 조화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단풍나무가 밀접한 지역은 여러 단풍나무 과의 수목이 어울려 빚어내는 가을색의 현란함은 다른 지역 명산들이 따라올 수 없답니다.

내장산 단풍의 역사

내장산 단풍길 조성에는 국립공원사무소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내장사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108 그루의 단풍터널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기 이전부터 조성되어 있었지만 그 거리가 짧아 못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980년 이후 우화정 인근에 자리잡고 있던 상가들이 집단이전을 하고 내장산북부사무소가 개소한 1987년 이후 내장산에 단풍나무 이식 작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셨던 직원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출근해서 나무 심고 밥 먹고 나무 심으면 하루가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내장산의 가장 오래된 단풍나무는 단풍터널길에 있지 않다?

내장산의 단풍나무 중 가장 오래된 나무는 몇 살일까요? 내장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의 일환으로 내장산의 자랑 단풍나무의 수령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연관찰로 사랑의 다리 부근에서 서래봉 방향으로 200m 위쪽에 소수군락을 이루고 있는 단풍나무 수령이 약 300여 년으로 가장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곳 단풍나무 서식지는 옛 서불암터로 50여m의 인공석축대가 남아있고, 정남향인데다가 암벽과 자갈이 대부분인 주변의 토양과 달리 사질 양토로 나무 성장에 적지입니다. 이 곳 군락지가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것은 탐방로가 없고, 기암이 병풍처럼 수직으로 둘러 쳐진 서래봉 절벽 아래 위치하여 쉽사리 탐방객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단풍터널길



▲ 박대통령 고개가 있던 천하대장군 지역

내장산 단풍 감상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전망대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다 바로 아래 보이는 냉천골이 내장산 단풍 감상 포인트의 백미를 이룹니다. 전망대에서 벽련암 일대와 단풍터널을 보는 것이 둘째, 서래봉에서 벽련암을 비롯해 내장산을 보는 것이 셋째입니다. 추령 넘어가는 길은 네 번째 감상 포인트로 꼽히는데 내장산의 속살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내장산의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

내장산의 단풍이 유난히 아름답다구요? 가을 단풍의 아름다운을 결정하는 환경적인 요소는 온도, 햇빛 그리고 수분의 공급입니다. 내장산의 단풍이 유난히 아름다운 이유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길며, 단풍나무 종류가 다양하고,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등의 명산 단풍이 지고 난 다음 가장 늦게 절정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 숨은 볼거리 비자나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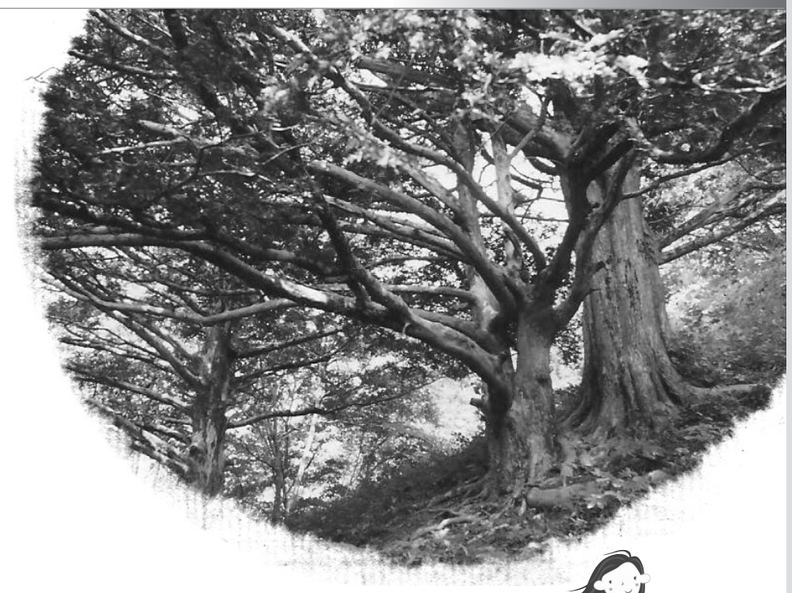


내장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을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단풍나무입니다.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화려한 단풍나무가 있기에 내장산의 또 다른 매력들이 조금은 뒷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내장산의 꼭꼭 숨겨진 매력 비자림이 있습니다. 비자나무는 우리나라의 내장산 이남과 일본 등에서 자랍니다. 나무의 모양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내장산에서는 백양사(白羊寺) 주변에 8~10m에 달하는 비자나무 10,000여 그루가 있고, 내장산원적골 자연관찰로 내 수령이 300~500년 가량 되는 비자나무 15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백양사 비자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에는 비자나무가 자라는 가장 북쪽에 있는 숲이라고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현재는 이 지역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내장산에서도 비자나무 숲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장산 비자나무 숲이 형성된 유래는 고려 고종(재위 1213~1259) 때 각진국사(覺眞國師)가 당시 유일한 구충제였던 비자나무 열매로 가까운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절 주변에 심었다고 하며, 실제로 1970년대까지도 스님들은 열매를 거두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계절 녹음이 가득한 비자나무는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지하고를 거의 50cm 정도로 두고 가지를 사방으로 넓게 뻗어 잎을 내놓아 비자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자나무 숲이 뿜어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치유제 피톤치드의 진한 향기는 일상생활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장산의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그 깊은 속 안에 숨겨져 있는 비자림을 찾아가 본다면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굴거리나무 군락지

내장산 금선계곡에서 전망대 올라가는 길에서 천연기념물 91호인 굴거리나무 군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해안지대와 제주도, 전라도의 내장산 · 백운산, 해안가로는 안면도까지 자라는데,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은 굴거리나무가 자생하는 북쪽 한계지역이라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91호로 지정 · 보호하고 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따뜻한 지방에 자라는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진 활엽수로 1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잎은 가지 끝에 모여 나는데 가죽처럼 두껍고 광택이 있으며 잎자루는 길고 붉은 빛을 띠어 인상적입니다. 굴거리나무의 잎은 약으로 쓰이는 만병초라는 나무와 닮아있지만, 굴거리 나무는 화학적 구조가 전혀 다른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장산 탐방코스



내장산 탐방코스

내장산 탐방로는 월영봉에서 장군봉에 이르는 내장산 9봉을 중심으로 내장사 기점 탐방로 5개와 내장저수지에서 서래봉으로 오르는 길, 탐방안내소에서 신선봉으로 오르는 길, 소둥근재로 가는 내장-백암산 종주길을 합쳐 십여 개나 됩니다. 정확히 몇 개라고 못박을 수 없는 것은 산세가 'ㄷ' 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어 어디서 출발하든 쉽게 능선에 올랐다가 원하는 곳에서 하산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탐방로 가운데 일주문을 기점으로 벽련암-원적암-내장사로 이어지는 자연관찰로코스는 구릉지대로 길이 나있어 노약자나 어린이가 함께하는 가족산행 코스로 적당합니다.

자연휴식년제) 내장산 탐방로에 2003년에서 2005년까지 2년간 특별한 일이 있었다?

지리산 칠선계곡을 아시나요? 13년만에 개방되어 언론에 이슈가 되었는데요, 내장산에도 이런 탐방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연 휴식년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연휴식년제는 탐방객의 집중 이용으로 극심하게 훼손된 탐방로 또는 희귀 동식물 서식지역으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곳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장산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2년간 2개의 탐방로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여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 자연휴식년제 구간

- 원적암 ~ 망해봉 : 현재 탐방로에서 해제 되었음 (2km / 탐방로, 2003~2005)
- 내장(남) 전남대학교수련원 입구~남문, 은선골 (3.5km, 2003~2005)



주요 탐방 코스



■ **서래봉 코스 (5.8km / 3시간)**

– 탐방안내소 → 벽련암 → 서래봉 → 불출봉 → 원적계곡 → 탐방안내소

■ **신선봉 코스 (7.7km / 4시간)**

– 탐방안내소 → 용굴입구 → 신선봉 → 까치봉 → 금선계곡 → 탐방안내소

■ **능선일주 코스 (11.7km / 8시간)**

– 탐방안내소 → 서래봉 → 불출봉 → 망해봉 → 연지봉 → 까치봉 → 신선봉 → 연자봉 → 장군봉 → 유군치 → 동구리

■ **내장사~백양사 종주 코스 (11km / 8시간)**

– 탐방안내소 → 까치봉 → 소등근재 → 순창새재 → 상왕봉 → 백학봉 → 영천굴 → 백양사

■ **입암지구 코스 (10km / 6시간)**

– 입암공원지킴터 → 장성새재 → 순창새재 → 까치봉 → 금선계곡 → 탐방안내소



내장산 9봉



내장산은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여 안내(內) 감출장(藏), 내장이라고 불리어 집니다. 이름처럼 많은 굴곡의 계곡이 양의 창자와 비슷해서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려와도 계곡 속에 들어가면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장산은 주봉인 최고봉인 신선봉을 중심으로 해발 600~700m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9개의 봉우리와 계곡이 태극모양을 이루는 독특한 형세를 가지고 있어 '산태극수태극' 이라 표현하기도합니다.

산줄기는 추령에서 서래봉으로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휘어 감고, 물줄기는 신선봉과 연지봉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산과 물이 모두 태극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월영봉(427m)은 9봉 중 가장 낮은 봉우리입니다. 추령에서 올라오는 달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봉인 서래봉(624m)은 북쪽을 두른 암산이며 내장산의 대표 경관을 자랑합니다. 옛 농기구인 써래를 닮았다 하여 써래봉이라 불리다가 서래봉으로 되었습니다.

3봉인 불출봉(622m)은 서래봉 줄기의 서쪽 끝에 있는 봉우리를 이르며 원적암의 최고봉입니다. 불출봉 정상에서의 조망은 가히 으뜸이라 할 만큼 장관이고요, 불출봉에 안개나 구름이 끼면 그 해 가뭄이 계속된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4봉은 망해봉(679m)으로 불출봉에서 서남간에 뻗어있으며 연지봉 사이에 솟아있는 봉우리를 말합니다. 내장산 안쪽으로 먹뱀이 골이 잘 보이며, 바깥으로는 용산저수지와 호남평야는 물론 맑은 날이면 정상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5봉 연지봉(670m)은 이곳에서 발원하는 내장산 계곡의 물이 서래봉을 돌아 내장호를 이루며 동진강 줄기의 근원입니다.

6봉은 까치봉(717m)으로 내장산 서쪽 중심부에 2개의 암봉으로 되어있는 백암산을 연결하는 주봉입니다. 봉우리의 형상이 까치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까치봉이라 합니다.

7봉은 신선봉(763m)으로 내장산 최고봉입니다. 산정에는 신선들이 바둑을 즐겼다는 평탄한 넓은 지역인 금선대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금선대에 바둑을 두고 있었으나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신선봉이라 일컫게 되었다고 합니다.

8봉인 연자봉(675m)은 산봉우리가 붓끝 같다고 하여 일명 문필봉이라고도 하며, 9봉인 장군봉(696m)은 추령에서 연자봉 중간에 솟아있는 봉우리로 험준하며 수목이 울창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승병대장 희묵대사가 활약했다고 전해지는 험준한 봉우리로 산정에는 지휘대가 있는데 장군대 또는 용바위라고 합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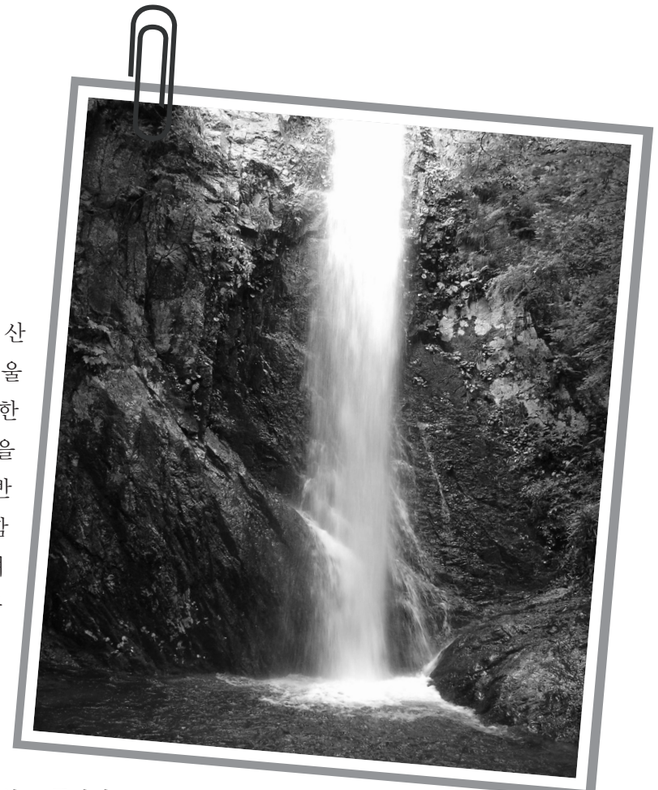
▲ 망해봉



▼ 신선봉



내장산국립공원 경관자원



▲ 도덕폭포

내장산은 봄에는 진달래꽃, 철쭉꽃, 산벚꽃 등으로 꽃천지를 이루고, 여름에는 울창한 수목의 녹음과 계곡의 시원한 물로 한 여름의 무더위마저 가시게 합니다. 가을 내장산 단풍은 금산사의 봄 벚꽃, 변산반도의 여름녹음, 백암산의 겨울설경과 함께 호남 4경으로 그 이름이 내외로 알려져 있고, 겨울의 설경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내장산의 최고봉은 신선봉(763m)으로서 월영봉, 서래봉, 불출봉, 망해봉, 연지봉 등의 암봉과 까치봉, 연자봉 및 장군봉 등이 내장사를 중심으로 이여져 있고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재(추령)에 인접하여 완연히 하나의 타원형을 이루며 분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백양사 지구의 백암산은 상왕봉(741m), 사자봉, 도집봉, 가인봉, 백학봉을 중심으로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학바위, 촛대바위 등의 기암고봉과 가을단풍, 비자나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서 깊은 고찰 백양사와 호국의 얼이 깃든 입암산성, 맑고 깨끗한 장성호와 연계되는 천혜의 국립공원으로 탐방객의 정서함양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백양사는 기암괴석이 겹겹이 하늘에 솟아 백학이 하늘을 나는 듯 한 운치를 주는 백학봉 아래 자리 잡고 있는데 백제무왕 33년(632년)에 여환선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 원적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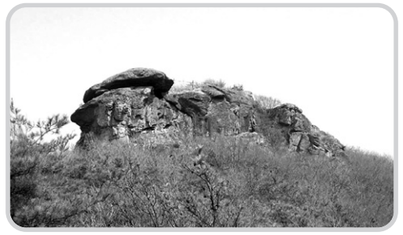
원적계곡은 연자봉과 망해봉이 형성하는 지형이 완만한 계곡입니다. 계곡 주변에는 고려 광종 26년에 지었다는 불출암터와 원적암 등의 암자가 있으며, 600년 이상 된 비자나무와 굴거리나무(천연기념물)들이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고, 계곡물에 비치는 단풍의 그림자가 특히 아름답습니다.

• 금선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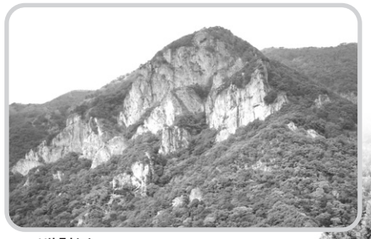
내장산국립공원 내 금선계곡은 내장사로부터 왼쪽 계곡으로 금선골을 지나 신선봉(763m)까지 이르는 계곡을 말합니다. 이 계곡 주변의 가을단풍은 내장산국립공원내에서도 가장 뛰어나 비단으로 수를 놓은 선이란 뜻으로 "금선계곡"이라 불려졌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단풍의 기간도 길며, 이곳의 금선폭포, 도독폭포는 신선봉과 용굴암과 더불어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주요 경관자원

구 분	주 요 자 원
산 봉	신선봉(763m), 장군봉 (696m), 연자봉(675m), 까치봉(717m), 연지봉(670m), 망해봉(679m), 불출봉(691m), 서래봉(624m), 월령봉(427m), 백학봉(651m), 상왕봉(741m), 사자봉(722m), 삼성산(548m), 입암산(667m), 가인봉(677m) 등
기 암	신선문, 금선대, 기름바위, 불출암, 갓바위, 학바위, 촛대 홈바위, 송이바위, 송곳바위 등
고개(령)	추령(가을재), 유군이재, 곡두재, 장성새재
계 곡	금선계곡(2.2㎞), 원적계곡 (3.2㎞), 백양계곡, 남창계곡(5.0㎞), 약수동계곡(6.0㎞), 청류동골(2.0㎞), 입암계곡(2.0㎞), 자하동골(2.5㎞), 몽계계곡(1.5㎞), 도덕계곡 등
폭 포	금선폭포, 도덕폭포, 몽계폭포, 용수폭포, 내인폭포 등
기 타	사랑의 다리 단풍터널, 용굴, 영천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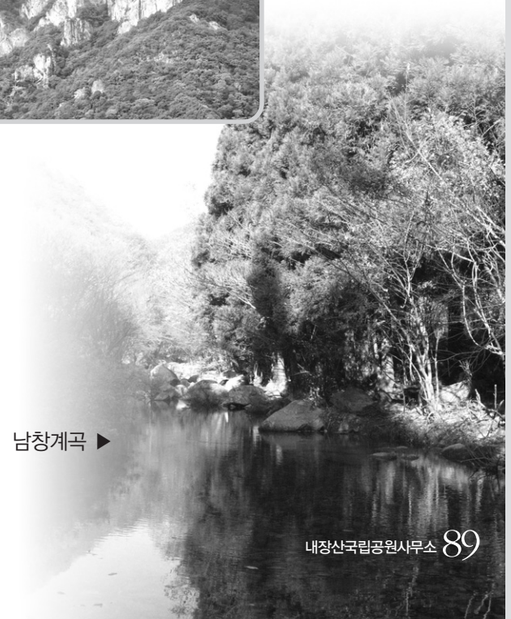
▲ 갓바위



▲ 백학봉



▲ 신선문



남창계곡 ▶



내장산국립공원 생물자원

내장산국립공원 일대에는 포유류 18종, 조류 82종, 양서류 12종, 파충류 12종, 담수어류 28종, 곤충류 1732종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2011년 국립공원 기본통계). 천연기념물은 원앙, 참매 , 붉은배매새, 소쩍새, 솔부엉이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2012) 내장산 단풍나무터널 길에서 올빼미의 부화 장면이 처음으로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주요 동물자원

구 분	주 요 자 원
포유류	담비, 삵, 두더지, 너구리, 오소리, 멧돼지, 다람쥐, 족제비, 노루, 고라니, 수달 등
조 류	뿔논병아리, 원앙, 흰배지빠귀, 말똥가리, 황조롱이, 올빼미, 청둥오리, 직박구리, 흰뺨검둥오리, 물총새, 아비, 참매, 호반새, 뻐꾸기, 박새, 노랑턱멧새, 쇠백로, 큰오색딱다구리, 흰목물떼새, 꾀꼬리 등
곤 충	사슴벌레, 왕오색나비, 유리창나비, 홍점알락나비, 고마로브집게벌레, 납작돌좀, 흰줄가지나방, 고려개미사돈, 등빨간먼지벌레, 비단벌레 등
거 미	보경염낭거미, 왕굴뚝거미, 코접시거미, 모산굴뚝거미, 흰배곰보애접시거미, 한국솔개거미, 고려풀거미, 엄지유령거미, 남창참매거미, 점미진거미, 월령왕거미 등
양서 · 파충류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두꺼비, 한국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장지뱀, 대륙유혈목이 등
어 류	갈겨니, 피라미, 버들치, 긴몰개, 밀어, 각시붕어, 왜매치, 참종개, 남방종개, 동사리, 자가사리, 미유기 등
저서성 대형무척추	가는무늬하루살이, 총채민강도래, 한국강도래, 두눈강도래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수달, 담비, 삵,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검독수리, 매, 참매, 말똥가리, 까막딱다구리, 흰목물떼새, 털발말똥가리, 삼광조,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왕은점표범나비



▲ 검독수리



▲ 비단벌레



▲ 수달

내장산은 식물구계학적으로 남부아구에 속하고, 식물사회학적으로는 과거에 다소 인위적인 간섭이 적었던 지역은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층층나무 등이 주로 출현하는 반면, 간섭이 많았던 지역은 소나무와 같은 인위적 식재림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저지역에서는 비자나무, 굴거리나무 및 차나무 등의 식물이 생육하여 난대적 특성을, 고지대에서는 신갈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장산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이름이 붙여진 식물들이 많습니다. 내장고사리, 내장단풍, 내장금란초, 백양사초, 백양더부살이, 백양꽃 등이 내장산에서 처음 발견된 식물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주요 식물자원

구 분	주 요 자 원
주요 식물상	합다리나무, 비목나무, 굴거리나무, 이나무, 고로쇠나무, 왕고로쇠나무, 단풍나무, 내장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복자기나무, 신나무, 꼬리말발도리, 산앵도나무, 복분자딸기, 자귀나무, 비목나무, 이나무, 층층나무, 비자나무, 검팽나무, 굴참나무, 철쭉꽃, 석창포, 자란초, 뻐꾹나리, 백양꽃, 천마, 약난초, 백작약,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만주바람꽃, 꿩의바람꽃, 옥녀꽃대, 내장고사리, 어리병풍, 붉은대극 등
고등균류	맑은애주름버섯, 가랑잎애기버섯, 구름버섯, 치마버섯, 말불버섯, 갈색먹물버섯, 절구버섯아재비, 조각무당버섯, 우산버섯, 달걀버섯, 목이, 개암버섯, 광대버섯, 무당버섯 등
희귀식물	창포, 뻐국나리, 땅나리, 약난초, 백운란, 어리병풍, 진노랑상사화, 노랑붓꽃, 백양꽃, 대흥란, 꼬마은난초, 백작약, 백양더부살이, 옥녀꽃대, 천마, 변산바람꽃, 도바람꽃, 만주바람꽃, 큰개고사리, 세뿔석위, 검팽나무, 애기천마 등
주요 식물군락	소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비자나무군락, 단풍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굴거리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 버드나무군락 등



▲ 구슬봉이



▲ 노랑붓꽃



▲ 백양꽃



▲ 진노랑상사화



뻐꾹나리 ▶

내장산국립공원 문화자원

NAEJANGSAN NATIONAL PARK

내장산국립공원에는 내장사와 백양사를 비롯한 백제 문화유산이 있고,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전략요충지 역할을 하던 입암산성지 등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장산국립공원의 품안에 안겨 있는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636년)에 영은조사가 창건 했다고 전해지며, 한 때는 50여 동의 대가람(大伽濫)이 들어섰던 때도 있었지만, 정유재란과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되고 지금의 절은 대부분 그 후에 중건된 것 입니다.

백양사, 방장산, 장성호, 담양호 등이 주변에 있고 주요 문화재로는 내장사 조선동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백제 무왕33년(632)에 창건된 백양사는 원래 백암사라 불리어졌는데 후에 환양선사의 설법이 너무도 감명 깊어 흰 양이 내려왔다 하여 백양사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문화자원

구 분	수 량	주 요 자 원
보 물	2점	월인석보재15(745-10),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1346)
사 적	1점	장성 입암산성(384)
명 승	1점	장성 백양사 백학봉(38)
천연기념물	8점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91),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숲(153), 매류(323, 참매(323-1), 붉은배새매(323-2), 새매(323-4), 황조롱이(323-8)), 올빼미, 부엉이류(324, 솔부엉이(324-3), 소쩍새(324-6)), 원앙(327), 남생이(453), 장성 백양사 고불매(486), 비단벌레(496)
시도유형문화재	7점	내장사조선동종(49), 백양사 극락보전(32), 백양사 대웅전(43), 백양사 사천왕문(44)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목조아미타여래좌상(289), 장성 백양사 각진국사복구진영9(290),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아미타회상도(291)
시도시념물	2점	영은사지(63), 내장사지(73)
문화재 자료	1점	청류암 관음전(179)

내장사

백제 무왕 37년(636) 영은조사가 창건했습니다. 원래는 지금의 내장사 어귀인 부도전 일대에 '영은사'로 50여 동의 가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 숙종과 조선 명종 때 전각과 당우를 크게 고쳐 세웠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었고 그 뒤 정조 때 중창하였습니다.

1925년 본사를 백련암으로 옮겨 백련사라 하고 옛 절터에 영은암을 두었습니다. 내장사가 현재의 자리에 세워진 것은 1938년의 일입니다.



▲ 내장사



▲ 내장사 사찰(1982)



▲ 내장사 대웅전(1983)



▲ 내장사 사찰(1999)



벽련암

지방기념물 73호, 서래봉 중봉 330m 지점에 있으며 원래 내장사로 일컬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영은암(현 내장사)이라 부르던 곳을 내장사로 개칭하였고 이곳은 백련암이라 이름했으나 그 후 벽련암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백제 의자왕 20년(660) 환해선사가 창건했고 1925년 백학명 선사가 본전인 극락보전과 요사를 중건하고 선당(호상서림)을 세웠는데 1951년 소실되었습니다.

백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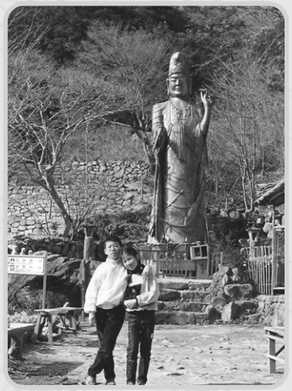
기암괴석이 겹겹이 하늘에 솟아 있어 마치 백학이 하늘을 나는 듯한 운치를 주는 백학봉 아래 자리잡고 있습니다. 백양사는 백제 무왕 33년(632)에 여환선사가 창건하여 백암사라 하였고, 고려 때 중창, 정토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조선 선조 때 환양선사가 여기서 법회를 열었을 당시 너무나도 감병 깊은 설법에 이끌려 뒷산 흰양이 내려왔다 하여 백양사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 백양사 극락보전



▲ 백양사



원적암

내장사 서북쪽 비자나무숲을 지나 불출봉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암자는 고려 선종 3년(1086)에 지어졌으며, 인도에서 들여온 열반상은 예술적 가치가 중국 와불사 것과 같을 정도로 뛰어났으나 1910년에 도난당했습니다. 현재의 열반상은 상아로 만들었으며 석가여래의 열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조선 동종

전북 유형문화재 49호, 종신의 높이는 0.6m, 안지름은 0.5m의 작은 종입니다. 명문이 확실한 종으로 조선 후기 범종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전남 보림사(寶林寺)에서 옮겨왔으며 일제 말엽에는 놋쇠의 공출을 피하기 위하여 원적암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동란 때는 정읍시내 포교당에 피신시키는 등 파란만장한 이력을 지닌 종입니다.



입암산성지

백제시대에 쌓은 성으로 고려시대에 몽고군을 격퇴했던 곳으로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 고구려군에 대항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성 둘레는 총 5,028m. 정유재란 때 당시 별장 윤진이 왜군 소서행장과 싸우다 순절한 곳으로 그 순의비가 남아있습니다.





내장산과 전설

NAEJANGSAN NATIONAL PARK



산삼약수

옛날 내장산 가까운 마을에 살던 손씨 부부가 전국의 명산과 명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손씨 부부가 며느리감을 구하던 중 어떤 스님이 천생배필이라면서 평안도 규수를 추천했으나 그 규수는 가난한 집안 출신에 다리까지 저는 불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손씨 부부는 어렵게 얻은 자식을 불구 처녀에게 장가 보내라고 한 스님에게 폭언을 하였답니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토록 건장하던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부모와 인연이 닿지 않으니 불자가 되면 새로운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절을 찾아다니다가 내장산으로 들어가 공부방과 약수가 함께 있는 곳을 찾아 자리잡고 오직 불경공부와 불공에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바위틈에서 한 두 방울씩 떨어지는 약수를 받아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러기를 3년여 아들은 건강을 되찾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통달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내장산을 떠나 세상에 불법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지내던 암자 주변을 거닐던 도중 한 곳에 이르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받아 마시던 약수터에서 가까운 산기슭에 서너 평 되는 산삼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산삼에서 스며 나오는 약수를 먹고 살아온 것이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덧없는 인연을 단념하고 부처님과의 인연에 몸과 마음을 바친 자신에게 이러한 부처님의 은혜가 내린 것임을 깨닫고 더욱 정진하여 큰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산삼약수터는 지금의 원적암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둑떼의 소굴(巢窟)과 도덕폭포(道德瀑布)

백제가 망한 후 마을과 사찰의 힘이 탄탄했던 시절 내장사지역은 백제유민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자 유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도둑떼들이 기승을 부렸답니다. 이 도둑떼는 세상이 평화로워진 뒤에도 그 일부가 내장산 깊은 골짜기에서 노략질을 계속했는데 내장사를 비롯한 일대의 절과 암자와 마을을 대상으로 행패가 심했습니다.

이 도둑떼의 소굴은 도덕폭포와 가까운 바위굴이라 이웃 주민들은 아예 폭포를 '도둑폭포'라 부르며 행여 도둑의 눈에 띌까봐 먼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 암자에 찾아온 한 도승이 도술로써 도둑떼들을 제압하고 개과천선시켰습니다. 도승은 모든 도둑들을 데리고 폭포 아래로 내려가 목욕을 하게 했는데 이때부터 도둑폭포가 도덕(道德)폭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승이 찾았던 암자가 내장사라고도 하는데 도둑떼를 혼내줄 때 나타난 제비와 까치, 사자와 코끼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비봉(燕子峰), 까치봉, 사자봉, 코끼리봉(象王峰) 등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장군바위

장군바위는 복흥면 봉덕리에 있습니다. 옛날 정읍군 내장면 서래봉 중턱의 작은 암자에서 스승스님과 제자스님이 불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스님은 몰래 어딘가를 갔다오곤 했습니다. 이상히 여긴 제자가 하루는 몰래 스승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스승스님은 한참 계곡을 따라 올라가더니 큰 바위를 사뿐히 들고 바위 밑에 고인 물을 마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는 바위 밑의 물이 힘을 얻는 약수라고 생각하고는 대나무로 빨대를 만들어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마셨더니 과연 골격이 자꾸 커지며 힘이 솟아나서 나중에는 바위도 쉽게 들고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오래 계속되자 스승스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자기의 허락도 없이 약수를 마신 제자에게 화를 내며 힘을 시험하고자 자기가 산 위에서 던지는 바위를 모두 받도록 했습니다. 스승의 말대로 산아래서 제자스님은 스승이 던지는 모든 바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그때 받아서 던진 바위가 수없이 밭에 박혀있습니다. 지금은 논으로 개간하면서 바위를 깨거나 옮겼지만 그래도 2~3개의 큰 바위가 남아 있어 장군바위로 불린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40년사를 마감하며

내가 생각하는 내장산국립공원
직원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발간후기

[내가 생각하는 내장산국립공원]

"나에게 내장산국립공원은 처갓집이다."

자원보전과 일반직 6급 김영권

2004년 친구의 소개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알게 되어 시작된 생활은 벌써 햇수로 9년이 되어가고 있다. 9년의 시간 동안 국립공원에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도 했고,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못할 딸 둘을 얻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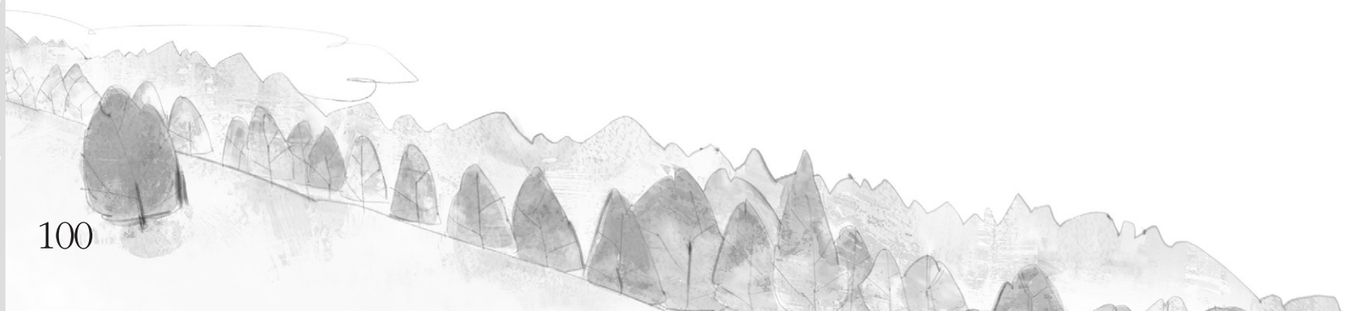
같은 해에 입사했던 동기의 블로그에서 본 사진속의 여자 모습에 한 눈에 반하여 무작정 소개해 달라고 조른 끝에, 9개월의 짧은 연애생활을 거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국립공원과 지역주민 간에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시절이기에 처갓집이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장사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내장산에서만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큰 딸의 출산 후 불거진 와이프의 우울증 때문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장산 근무를 지원하게 되었다. 집에 가면 사이좋은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였지만, 사무소 업무를 진행할 때면 국립공원 직원과 지역주민, 지역담당자와 지역주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로 지내면서 부담스럽고 어색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관계도 '지역과 함께하는 공원관리' 라는 공원 이념이 생기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부담과 어색함은 진정한 이해로 바뀌게 되었다.

장사를 그만두고 광주로 나가계신 장인어른을 한 번쯤 찾아뵙고 잘 담근 복분자술을 두고 얘기할 때면, 불과 몇 년 밖에 안 된 시절이지만 그 때의 얘기를 하시며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신다. 내가 내장산에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 장인어른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지금은 이 곳에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나와 내 가족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준 내장산이야말로 넉넉한 품으로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처갓집과 같은 존재로 내 마음 속 깊이 남아있다.



[내가 생각하는 내장산국립공원]

나에게 내장산국립공원은 20대를 함께한 친구이다.

탐방시설과 일반직 6급 박혜림

청소년시기에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피아노를 취미생활로만 접어두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과목이 생물이었다.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고등학교 3년과 대학진학까지 연결된 것을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아마도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강했을 정도로 좋아했지 않았나 싶다.

스무살.. 생물학을 전공으로 정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알게 된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실 생물학을 전공해서 아무관계도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에 취직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서 인지 전문직을 늘 생각해왔고 그러면서 선배님들을 통해 알게 된 국립공원은 평생 내가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꾸준히 준비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사할 수 있었다.

입사를 준비하면서 자주 다녔던 내장산국립공원.. 대학 3학년 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해 자연자원조사도 함께 하면서 한 달에 한두번은 꼭 오게 되었던 내장산은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내 20대에 늘 함께 해주었던 친구와 다름이 없었다.

스물넷.. 그렇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사하게 되면서 스물여섯...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를 하게 된 내장산국립공원... 국립공원의 다양한 생물자원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탐방프로그램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서 많은 탐방객들을 만나고 프로그램 참여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벌써 내장산에서 근무를 하게 된지도 5년이 훌쩍 지나있었고 나의 20대도 지나가게 되었다. 일하다 힘들면 혼자 몰래 나와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던 나의 아지트도 생겼고, 가끔 업무상 부딪히기도 하지만 항상 내편이 되어주는 친언니, 오빠, 동생같은 자연환경해설사분들도 늘 함께이다. 봄의 푸르름도, 여름의 시원한 원적골의 계곡도...가을의 곳곳에 있는 예쁜 단풍도, 겨울의 눈부신 설경도... 나에겐 늘 추억이고 함께 해주는.. 내장산의 모든 것은 이렇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아마도 내가 국립공원에 근무하는 한.. 아니 만에 하나 내가 국립공원에서 떠나게 된다하더라도 내장산국립공원은 내 마음속에 나의 한창때였던 20대에 만난 가장 소중한 친구로 남아있을 것이다.

한평생을 살면서 날 위해주는 3명 이상의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던가..!? 내가 근무하는 이 곳이 나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고 있으니.. 나는 이제 2명 이상의 진실한 친구만 생기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20대를 함께해준... 참 소중한 친구.. 내장산... 지금처럼 늘 사계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주길 기대해본다.

[내가 생각하는 내장산국립공원]

나에게 내장산국립공원이란 “인연” 이다.

자연환경해설사 정현진

2009년, 매섭게 추웠던 겨울 날....
그 겨울부터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수목원에 근무하며 틈틈이 관심 가졌던 그 곳, 내장산이 내 품에 들어온 것이다.
나의 고향은 정읍, 초등학교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내장산으로 소풍 온 것만 해도 손가락 발가락이 다 모자랄 지경이다.
어릴 적 동심과 꿈을 찾아 헤매며, 나의 마음에 보물찾기를 했던 그 곳.
내장산은 나뿐만아니라, 어쩌면 정읍시민의 마음의 고향인지도 모른다.
가까이 있었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내장산이 필연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인지 나에게로 왔다.
나는 내장산에 또 하나의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둥지를 만들면서 前직장인 수목원에 근무하며 배웠던 많은 것들과 내장산이 주는 경이로움과 애잔함은 나에게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나는 수목원과 산을 이어주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다.
前 직장을 그만두며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던 직장동료들, 원장님, 친구들...
하지만 역시 우리는 인연인지, 아니면 내장산에 사시는 산신령님이 신통해 내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그들을 나에게 바람처럼 데려다주었다.
신기하게도 내가 전에 근무했던 수목원 두 곳 다 내장산국립공원과 멸종위기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前 직장장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장산이 주는 인연에 절로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내장산!! 너는 나에게 참 신통방통한 구석이 많구나!!
그렇게 정기적으로 前 직장장동료들도 만날 수 있고, 현재 내장산에도 직장동료가 있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새삼 내가 복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까지 든다.
게다가 평생을 함께 둥지를 틀 짝까지 나에게 안겨주었다.
나에게 내장산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의 청사진엔 무엇이 그려졌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아무려면 어떠냐?
나의 곁엔 내장산이 있는데...

직원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행정과 최미경 엄마, 추혜경]



딸아 너가 쉽지 않은 숙제를 내줘서 엄마 오랜만에 연필을 든다. 벌써 7년전이구나. 너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 그만두고 국립공원에 합격하겠다기에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단다. 합격했다는 소식 전해 듣고 지도 펴놓고 변산을 찾던 게 어제 같구나.
우리 큰딸이 하는 일 엄마와 아빠는 믿고 있지만 다만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는 평생 베필을 만나 같이 생활한다니 걱정이 없어.
처음 변산에 너 데려다 주러 갔던 일이 생각나네.
엄마와 아빠는 어렵다는 너가 좋아하는 곳에 취업되었다고 하니 걱정도 들고 모처럼 여행하는 기분이었지. 엄마도 부산에서만 나고 자라 변산이란 곳은 너 덕분에 처음 가보는 것이었거든. 부산 바다와는 너무 다른 갯벌에 놀라고 고즈넉한 내소사의 모습에 반했었단다. 그런데 너 내려주고 돌아서는 길에 시내버스도 간간히 다니는 이 곳에서 너가 잘 생활할 수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되더구나.
하지만 1개월이 지난 뒤 처음 집에 온 너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구.
‘미경이가 이제야 즐기면서 일하는 직장을 찾았구나’ 생각이 들었어.
너가 국립공원 직원이 되어서 엄마, 아빠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 너희 아빠는 시간 날 때마다 너가 사준 등산화와 모자 쓰고 등산 다니시면서 딸 자랑을 하신대. 산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감시하는 바람에 친구 분들이 금연하게 되셨다고들 하시더라구.
엄마는 종교 때문에 종종 산을 찾는데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이 국립공원 직원인 걸 바로 알겠더라구. 직원들 보면 너 생각이 나서 먹을 거라도 사주고 오게 되더라. 그 분들은 아마 ‘저 아주머니 왜 저러나’ 했을지도 모르지.
이제 광주에서 새 보금자리를 만들고, 내장산에서 근무한다니 여태껏 해 온 것처럼 씩씩하고 긍정적으로 잘 생활해 나갈 거라 엄마는 믿는다. 같은 공단 직원이라 몸과 마음 건강할 것 같아 큰사위로 반겼던 김서방과도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고 다독여주는 행복한 가정 이루고.
단지 1시간 가량 출퇴근 해야 한다고 하니 차 조심하고, 현장 활동이 많은 직업이니 안전사고 조심해라. 엄마들은 환갑 아들도 아기로 보인다고 하더니 엄마가 그렇네. 올 가을에는 우리 큰 딸 덕분에 또 내장산 단풍 구경 한 번 가련다. 사랑한다. 내 딸!

[행정과 이지 형과장 딸, 나연]

우리 엄마는...?

저는 전주서일초등학교 5학년 오나연입니다. 우리 엄마는 국립공원에 다니십니다. 지리산에도 있었고 바닷가인 변산반도에서도 일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물좋고 공기좋은 곳에서 일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어렸을적부터 엄마가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니까 아빠랑 동생과 함께 엄마가 일하는 국립공원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하는 1박2일 캠프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참여했었고, 한번은 친구도 같이 데려가서 초가집 같은데서 잠도 잤고, 다른 가족들이랑 야영장에서 텐트치고 하룻밤을 자면서 맛있는 요리경연대회도 참여했었습니다.



가끔은 다른 엄마들처럼 주말에 쉬어서 식구들끼리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그랬지만, 지금은 엄마가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엄마는 국립공원에서 일한다"라고, 친구들은 제가 자주 얘기해서 국립공원을 잘 아는데 오히려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국립공원이 뭐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다른 어른들에게 국립공원이 얼마나 좋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이 지정된지 4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 100년쯤 지난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내장산이 더 아름답게 되도록 엄마를 포함한 많은 직원분들이 힘을 모아 내장산국립공원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5월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나연이가...

[자연환경안내원 송준호 아내, 하부경]



사랑하는 준호씨에게...

우리가 내장산과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9년째가 되어가네요~!
꽃다운 20대에 만났는데...우린 벌써 30대가 되고,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어요. 정말 시간의 흐름이란 놀라울뿐이네요.
처음 내장산에 오게 될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내장산과 인연을 맺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장산이 내 삶의 전환기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생기고 이곳에 삶의 터전을 잡게 되고...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장산국립공원이 얼마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 당신은 국립공원생태연수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겠죠?
5일이라는 장기 교육이라 많이 힘들테지만, 잘 해내리라고 믿어요~! 꼭 합격해서 돌아오세요!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당신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해 설명해주고, 자연놀이를 함께 해주는 자상한 아빠의 모습에 저의 눈은 반달이 되고 말죠. 투박한 손으로 작은 야생화를 관찰한다고 쥐고 있는 모습, 야간에 나방 사진을 찍겠다고 밖에 나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모니터링 한다며 온 산을 헤집고 다니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자연에서 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백화점에서는 30분도 지루해하면서, 자연 속에서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내는 당신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보다도 더 좋은 직업이 있을까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심인 당신이 참 멋지고 자랑스러워요~
큰 아이의 유치원에서 숲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내장산에 오는 날이면, 우리 아이의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아빠회사 가는 날이라고 기분이 들떠있죠...
매일 놀러 오는 곳이면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올 때는 또 다른 느낌인가봐요...ㅋㅋ
내장산이 자기 놀이터인 우리 아이들은 커서 어떤 추억을 갖게될까요...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과는 다른 추억을 갖게 되겠죠? 동식물과 함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우리의 바램처럼 자라주면 좋을텐데...
우리가 함께했던 곳이기에, 추억이 많이 서린 장소이기에, 우리에게 의미있는 내장산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되길 바래요.

우리가 내장산에 있을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가 남았든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구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함께 노력해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행정과 유정례 딸, 지은]

지은아!

엄마가 이곳에 온지 32년이 흘렀는데 그냥 추억을 더듬어 보고 싶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벌써 세 번이 바뀌는 시간속에 나의 20대, 30대, 40대를 고스란히 내장산의 보물과 함께 숨겨놨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린시절을 보낸곳을 대부분 고향이라고 하는데 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 곳에서 보냈기에 고향아닌 고향이 되버렸구나.

내장산은 당시에 수학여행 코스로서 초등학교때 다른 친구들은 다녀갔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보내달라고 하고 수학여행을 포기했었는데 내가 이곳에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정착하게 될 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단다.

맨처음 내장산은 건설부에서 위탁받아 전라북도 도청 산하기관으로 남직원42명, 여직원1명이 근무하는 대가족이었었지.

그 당시 교통수단은 청소차1대와 순찰용250cc 이륜차 2대로 공원구역을 누볐고, 정읍까지 우리의 발이 되어 주었던 대한여객 시내버스가 도로포장도 되지 않은 첩첩산중을 먼지를 날리며 달렸었지.

그 버스를 놓치면 출근할때는 정읍에서 택시를 타야했고, 퇴근할때는 깜깜한 밤이라도 혼자서 걸어 나오기도 하였었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다녔는지 그 시절이 가끔 생각이 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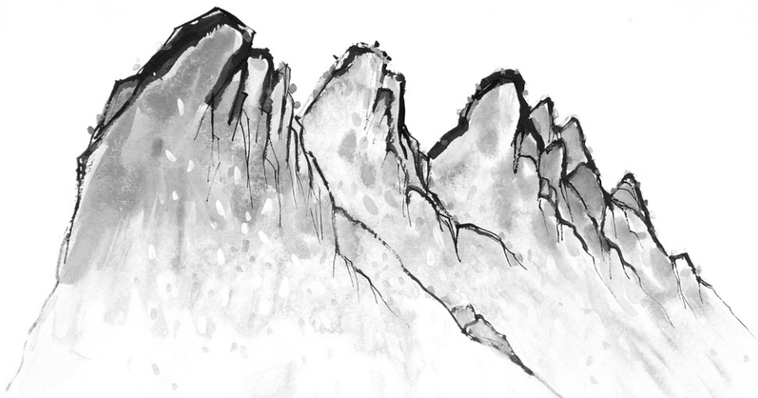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하고 항상 주중에 쉬는 관계로 몇 년간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 보니 내장사에 들어가 수도 생활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친구는 직접 찾아와서 내 생활을 지켜 보고 가기도 하였단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선배들과 함께 내장9봉을 오르 내리며 등산로 거리를 재기도 하고,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단속도 하고, 탐방객 안내도 하는 등 어떻게 시간가는줄 모르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 버렸네.

함께 근무했던 선배님들이 거의 떠나셨지만 다시 같이 근무하게 되거나 만나게 될 때는 예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단다.

지은아!

그 동안 구김없이 맑고, 밝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3남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구나.



너를 낳고 보름만에 출근해야 했던 일, 아침마다 문밖에 기다렸다 울며 불며 따라 나선 유아시절,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 엄마를 향해 목 놓아 울던 유치원 시절, 콜록 콜록 감기걸린 지은이에게 혼자 병원가라 했던 초등시절, 지양이가 3도화상을 입고, 현준이가 모세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경을 헤맬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지금이라면 육아휴직이라도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을텐데 그 당시에는 미비한 양육제도로 인하여 결혼 또는 출산하면 퇴직이 다반사였던 시절이라 누구에게도 말한마디 못하고 혼자서 날밤을 새웠던 기억들이 새록새록하다.

미안하다!

다른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으나 내장산을 더 사랑해서...

그래도 어느새 이렇게 훌쩍 커버린 지은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내장산과 함께 자랐기에 엄마에게는 내장산의 보배들이라

자랑하고 싶다.

서부아프리카 토고에 해외봉사 다녀온 지양이,

내년에 동부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날 현준이 모든들 사랑한다.

하고자 하는일 모두 소원성취되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사랑해요!

2012년 5월 어느날

내장산에서.

직원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녹색지킴이 정철수님의 둘째아들, 정태주]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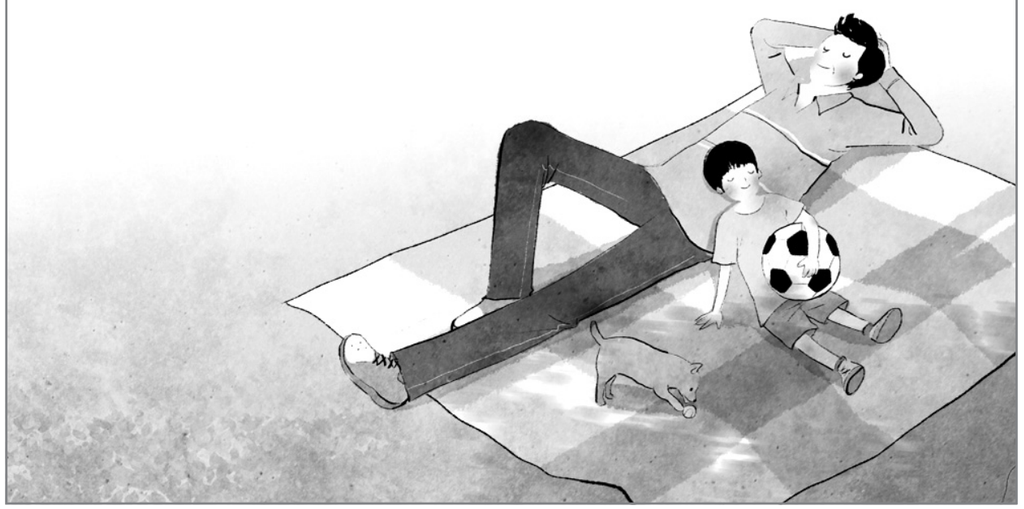
이제는 저도 어여쁜 딸아이의 아빠가 되어 아버지께 글을 올립니다.

유년시절 내장산 국립공원 잔디밭에서 뛰놀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엔 생생합니다. 지금은 먼 다도해 완도에서 생활하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아버지를 뵈러 갈 때마다 들르는 내장산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푸르고 아름다운 보물을 간직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매번 듣던 '너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다' 말에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왔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사 권유에 열심히 노력하여 기어코 공단제복을 입었지요.

아버지가 퇴직하신지 10년이 다되어가고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사한지 6년이 지났는데도 누구의 아들로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버지의 그림자도 쫓아가기 버거운 가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닮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발간후기

작년 가을 내장산으로 발령받아 내장산 40년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장산에서의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아마 이 기념도서를 발간하지 않았다면 내장산은 제 기억에 단풍이 아름다운 산으로만 기억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나니 다르게 보이더라' 는 말이 있듯이 내장산의 40년을 거슬러 보면서 자연에 스며있는 역사적 가치, 문화적 아름다움 그리고 공원관리의 열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장산의 자랑거리인 매표소에서 내장산에 이르는 긴 단풍 길도 밤낮으로 이식작업을 하며 정성껏 가꾼 직원들의 성과물임을 알게 되었고 탐방안내소 앞에 서면 그 옛날 관광호텔의 모습, 내장산북부관리사무소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탐방안내소가 오버랩 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장산 자연보호헌장탑 주변 잔디밭에 서게 되면 신혼부부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탐방로를 따라가다 보면 멋진 포즈의 기마순찰단을 만날 것 같습니다. 내장산을 찾는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으로 내장산을 다시 방문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년사를 엮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40년사를 통해 내장산 단풍나무의 역사와 내장산의 숨은 선율, 내장산을 다녀가신 주요인사들, 그리고 내장산국립공원과 함께한 지역주민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과거 에피소드에서는 저절로 번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실 것입니다.

관광문화가 바뀌고, 여가문화가 다양해짐에 가을 성수기 내장산의 탐방객이 1980, 1990년대와 비교하여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장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눈은 더욱 빛나고 팔과 발은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손길 하나하나 닿는 곳마다 자연은 되살아나 내장산은 현대 기계적인 삶에 지친 사람들이 방문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기념도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4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의 내장산 모습을 간직한 사진을 내어주신 지역주민분들과 저의 귀찮은 인터뷰에도 반가이 응대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내용 작성에서 탈고까지 내 일처럼 도와주신 우리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일반직 6급 최미경

